



ETHER LIBRARY

0019

변신

Die Verwandlung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 1915

문학 · 단편 · 희곡 · 시

변신

Die Verwandlung

프란츠 카프카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Die Verwandlung

지은이 프란츠 카프카(1883~1924)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915년. 10월 월간지 『디 바이센 블레터』에 처음 실렸고, 같은 해 말 라이프치히의 쿠르트 볼프 출판사가 「최후의 심판일」 총서의 한 권으로 펴냈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Die Verwandlung)》(1915)을 독일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영어 번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1915년 10월 월간지 『디 바이센 블레터』에 처음 실렸고, 같은 해 말 라이프치히의 쿠르트 볼프 출판사가 「최후의 심판일(Der jüngste Tag)」 총서의 한 권으로 펴냈습니다. 이 총서판을 1917년에 다시 찍은 본문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은 장 제목 없이 로마 숫자로만 세 부분을 나눕니다. 이 책은 제목을 붙이지 않고 제1부, 제2부, 제3부로만 나누었습니다. 원문의 97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카프카는 여러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쓰곤 하는데, 그 짜임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첫 문장의 「흉측한 벌레」

첫 문장에서 그레고르 잠자가 변한 것을 카프카는 Ungeziefer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이 쫓아내고 없애려 드는 더럽고 쓸모없는 것을 두루 가리키는 일상의 낱말이고, 어떤 벌레인지는 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카프카는 이 낱말을 책 전체에서 이 한 번만 쓰고, 그 뒤로는 그레고르가 무엇인지 끝내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정해 버리는 「갑충」이나 쓰임을 덧붙이는 「해충」 대신 일상어 「벌레」를 골랐고, 앞에 붙은 ungeheuer(괴물 같은, 엄청난)는 「흉측한」으로 옮겼습니다. 3부에서 파출부가 그레고르를 「쇠똥구리」라고 부르는 것은 한 인물의 막말로 옮겼습니다.

서술에 관하여

이야기는 3인칭 과거로, 거의 언제나 그레고르의 방 안에서, 그레고르가 보고 듣고 헤아리는 것만 말합니다. 서술과 그레고르의 생각 사이에는 벽이 없어서, 따옴표 없는 서술이 그대로 그레고르의 물음과 탄식이 되곤 합니다. 이런 대목은 따옴표를 씌우지 않고 3인칭 그대로 두되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어미를 골랐습니다.

카프카는 꼼직한 일을 사무 보고처럼 담담하게 씁니다. 그 온도를 지키려고 원문에 없는 감정의 말은 덧붙이지 않았고, 회사와 집안의 딱딱한 사무 언어(해명, 결근, 해약, 청구, 가족의 의무)도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긴 종속절과 쌍반점으로 이어지는 긴 문장은 우리말로 한 호흡에 읽히도록이었습니다.

말투와 이름에 관하여

가족끼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반말을, 자식이 부모에게 해요체를 씁니다. 누이동생 그레테는 원문에서 오빠를 이름으로 부르지만 우리말 관습에 따라 「오빠」로 옮겼습니다.

회사의 지배인, 세 하숙인처럼 바깥사람과는 서로 하십시오체를 씁니다. 그레고르가 죽은 날 아침 아버지가 하숙인들을 내쫓는 자리에서만 아버지의 말이 명령하는 하오체로 바뀝니다.

3부에서 그레테는 그레고르를 「저것」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레고르가 죽은 뒤로 서술은 부모를 「아버지」「어머니」 대신 「잠자 씨」「잠자 부인」이라 부르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레테를 「딸」이라 부릅니다. 모두 원문이 바꾼 그대로입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라하의 독일어 낱말은 그곳의 뜻으로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 Sessel은 안락의자가 아니라 보통 의자, Kasten은 옷장입니다.

그 밖의 것

옮긴이 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낯선 낱말은 우리말 역어로 풀었고, 상징이나 해석을 풀이하는 일은 독자에게 맡겼습니다.

나이와 햇수는 「열일곱 살」, 「다섯 해」처럼 한글로, 시각의 분은 「여섯 시 45분」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적었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와 괄호로 이었으며, 끊긴 말은 말줄임표로 옮겼습니다.

차례

제1부	8
제2부	27
제3부	47

제1부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침대 속에서 자기가 흉측한 벌레 한 마리로 변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고개를 조금 들면 활 모양의 단단한 마디들로 나뉜 불룩한 갈색 배가 보였는데, 그 배 꼭대기에 얹힌 이불은 당장이라도 통째로 미끄러져 내릴 듯 간신히 걸려 있었다. 나머지 몸집에 비해 가련하리만큼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가 눈앞에서 속절없이 어른거렸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는 생각했다. 꿈이 아니었다. 그의 방은 조금 작기는 해도 사람이 사는 제대로 된 방이었고, 낮익은 네 벽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옷감 건본이 풀어 헤쳐진 채 펼쳐져 있었다. 잠자는 외판원이었다. 그 탁자 위 벽에는 얼마 전 그가 화보 잡지에서 오려 내어 예쁜 금박 액자에 넣어 둔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모피 모자와 모피 목도리를 두른 여인이 곳곳이 앉아 팔뚝이 통째로 파묻힌 묵직한 모피 토시를 보는 사람 쪽으로 쳐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레고르의 눈길은 이어 창 쪽으로 향했고, 빗방울이 창턱의 함석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흐린 날씨에 그는 아주 울적해졌다. "조금 더 자면서 이 바보 같은 일들을 다 잊어버리면 어떨까." 그는 생각했지만, 그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태로는 그런 자세를 잡을 수가 없어서, 아무리

힘껏 오른쪽으로 몸을 내던져도 번번이 흔들거리며 도로 반듯이 눕고 말았다. 그는 버둥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채 아마 백 번은 그렇게 해 보았고, 옆구리에 이제껏 느껴 본 적 없는 가볍고 둔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서야 그만두었다.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참 고된 직업을 골랐구나! 날이면 날마다 길 위에서 지내야 하니. 밖으로 돌며 장사할 때 겪는 신경 쓰임은 회사 안에 앉아서 하는 본래 장사보다 훨씬 크고, 게다가 나한테는 여행이라는 고역까지 지워져 있지. 기차 갈아탈 걱정, 때도 없고 맛도 없는 끼니, 늘 바뀌기만 하고 오래가지도 않고 끝내 정들지도 않는 사람 사귄. 다 악마한테나 잡혀가라지!" 배 위쪽이 살짝 가려왔다. 그는 고개를 더 잘 들려고 반듯이 누운 채 침대 기둥 쪽으로 천천히 몸을 밀어 가더니,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는 자잘한 하얀 점이 잔뜩 돋은 가려운 자리를 찾아내고, 다리 하나로 그 자리를 더듬어 보려 했지만 곧바로 거두어들였다. 닿자마자 오싹한 한기가 온몸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아까 자세로 미끄러져 돌아갔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 보면 사람이 아주 바보가 된다니까." 그는 생각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하는 법이야. 다른 외판원들은 하렘의 여자들처럼 산다고. 이를테면 내가 오전 중에 받아 낸 주문을 옮겨 적으려고 여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양반들은 그제야 아침을 먹고 앉아 있지. 내가 사장 앞에서 그랬다간 그 자리에서 쫓겨날 거야. 그런데 누가 알아, 그게 오히려 나한테 아주 잘된 일이지. 부모님 때문에 참고 있는 게 아니었으면 진작 그만두고, 사장 앞에 나가서 속에 있는 생각을 밑바닥까지 다 털어놓았을 거야. 그랬으면 사장은 높은 책상에서 굴러떨어졌을걸! 그 높은 책상 위에 떡하니 올라앉아 위에서 내려다보며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도 참 별난 버릇인데, 게다가 사장이 귀가 어두워서 직원은 바짝 다가서야 하잖아. 뭐, 희망을 아주 버린 건 아니야. 부모님이 사장한테 진 빚을 갚을 만큼

돈을 모으기만 하면(아직 대여섯 해는 걸리겠지만) 그 일은 기어이 하고 말 거야. 그러면 크게 한 번 끊어 내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일어나야 해. 내 기차는 다섯 시에 떠나니까."

그리고 그는 옷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자명종 쪽을 건너다보았다. "하느님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여섯 시 반이었고, 시곗바늘은 태연히 앞으로 가고 있었다. 아니, 반을 지나 벌써 45분에 다가가고 있었다.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침대에서 보아도 자명종은 네 시에 제대로 맞춰져 있었다. 틀림없이 울리기도 했을 터였다. 그래, 하지만 가구까지 뒤흔드는 그 요란한 소리를 듣고도 태평하게 잠잘 수 있단 말인가? 뭐, 태평하게 자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더 깊이 잤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기차는 일곱 시에 떠났다. 그것을 잡으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할 텐데, 견본은 아직 꾸리지도 않았고, 그 자신도 몸이 그리 개운하거나 날렵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차를 잡는다 해도 사장의 벼락은 피할 수 없었는데, 회사 사환이 다섯 시 기차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기차를 놓쳤다는 보고를 진작 올렸을 터였기 때문이다. 그자는 줏대도 생각도 없는 사장의 꼬나풀이었다. 그럼 아프다고 알리면 어떨까? 하지만 그레고르는 다섯 해를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앓은 적이 없었으니, 그건 몹시 거북하고 수상쩍은 일이 될 터였다. 사장은 틀림없이 의료 보험 조합 의사를 데리고 와서,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고 부모를 나무라고, 세상에는 아주 건강하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 의사를 들먹이며 무슨 반박이든 잘라 버릴 터였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의사가 아주 틀린 말을 하는 셈일까? 그레고르는 실제로, 그렇게 오래 자고도 정말 쓸데없이 남아 있는 졸음만 빼면 몸이 아주 멀쩡했고, 오히려 유난히 허기가 심했다.

그가 침대를 떠날 결심도 못 한 채 이 모든 것을 정신없이 따져 보는 사이 자명종이 막 여섯 시 45분을 쳤고, 그때 침대 머리맡 쪽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레고르." 누군가 불렀다. 어머니였다. "여섯 시 45분이다. 떠나야 하지 않니?" 그 부드러운 목소리! 대답하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 그레고르는 깜짝 놀랐다. 틀림없이 예전 그 목소리였지만, 거기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듯 억누를 수 없는 고통스러운 뻑뻑 소리가 섞여 있었고, 그 소리는 말을 처음 한순간만 또렷하게 놔두었다가 여운 속에서 뭉개 놓아서 듣는 사람은 제대로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는 자세히 대답하며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이래서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다. "네, 네, 고마워요, 어머니. 지금 일어나요." 나무 문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그 말에 마음을 놓고 발을 끌며 멀어져 갔다. 그러나 이 짧은 대화로 다른 식구들도 그레고르가 뜻밖에 아직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벌써 한쪽 옆문에서 아버지가 약하게, 그러나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아버지가 불렀다. "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다시 재촉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다른 쪽 옆문에서는 누이동생이 나직이 애태우며 물었다. "오빠? 어디 아파? 뭐 필요해?" 그레고르는 양쪽에 대고 대답했다. "별써 다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공들여 발음하고 낱말 사이사이에 길게 쉬어 목소리에서 이상한 데를 모조리 없애려 애썼다. 아버지는 그 말에 아침 식탁으로 돌아갔지만 누이동생은 속삭였다. "오빠, 문 열어. 제발." 그러나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출장을 다니며 몸에 밴 조심성, 집에서도 밤에는 문을 모조리 잠가 두는 버릇을 속으로 칭찬했다.

그는 우선 조용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 아침을 먹은 다음에야 그다음 일을 궁리할 생각이었다. 침대에 누워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야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 침대에서 잘못 누운 탓인지 가벼운 통증을 느꼈다가 막상 일어나 보면 그저 기분 탓이었던 일이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그는 떠올렸고, 오늘의 이 상상들이 차츰 어떻게 풀려 갈지 자못 궁금했다. 목소리가 달라진 것은 외판원의 직업병인 지독한 감기의 전조일 뿐이었고, 그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불을 걷어 내는 것은 아주 간단했다. 몸을 조금 부풀리기만 하면 저절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다음부터가 어려웠다. 특히 몸이 엄청나게 넓적했기 때문이다. 몸을 일으키려면 팔과 손이 있어야 했는데, 그에게는 그 대신 실 새 없이 제각각 움직이는 데다 그가 마음대로 다룰 수도 없는 수많은 가는 다리밖에 없었다. 그중 하나를 구부리려 하면 그 다리부터 쪽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리로 하려던 일을 해내고 나면, 그사이 다른 다리들이 모두 풀려난 듯 극도로 괴롭게 흥분해서 저마다 날뛰었다. "괜히 침대에서 꾸물대지 말자."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우선 몸의 아랫부분부터 침대 밖으로 빼내려 했다. 그러나 아직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랫부분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일이 그렇게 더디기만 했다. 마침내 그가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있는 힘을 다 모아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앞으로 내질렀을 때는 방향을 잘못 잡아 침대 아래쪽 기둥에 세계 부딪쳤고, 그 타는 듯한 통증을 겪고서야 그는 바로 그 아랫부분이 지금은 어쩌면 몸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라는 것을 깨우쳤다.

그래서 그는 상체부터 침대 밖으로 빼내 보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그것은 쉽게 되었고, 몸뚱이도 넓고 무거웠지만 마침내 머리가 돌아가는 쪽으로 천천히 따라왔다. 그러나 드디어 머리를 침대 밖 허공에 내밀게 되자 그는 이대로 더 나아가기가 겁이 났는데, 결국 이렇게 떨어지고 말면 머리가 다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일 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었다. 차라리 침대에 그대로 있는 편이 나았다.

그러나 같은 애를 쓴 끝에 한숨을 내쉬며 아까처럼 누운 그는, 가는 다리들이 어찌면 더 사납게 서로 싸우는 것을 다시 보았고, 이제껏대로인 것들을 가라앉혀 질서를 잡을 길이 보이지 않자, 침대에 그냥 있을 수는 도저히 없다고, 침대에서 벗어날 희망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엇이든 다 걸어 보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라고 다시 혼잣말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절망에 찬 결심보다는 차분한, 더없이 차분한 숙고가 훨씬 낫다는 것을 틈틈이 스스로 일깨우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는 될 수 있는 한 날카롭게 창 쪽으로 눈길을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좁은 길 건너편까지 가린 아침 안개를 바라보아서는 자신감도 생기도 얻을 수 없었다. "벌써 일곱 시군." 자명종이 다시 울리자 그는 혼잣말을 했다. "벌써 일곱 시인데 아직도 저렇게 안개가 끼어 있다니." 그리고 그는 한동안 숨을 약하게 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마치 완전한 고요 속에서 어찌면 진짜 당연한 상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일곱 시 15분을 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있어야 해. 게다가 그때쯤이면 회사에서 누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회사는 일곱 시 전에 문을 여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몸을 길이 그대로 아주 고르게 흔들며 침대 밖으로 내보내는 일에 나섰다.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머리를 바짝 쳐들 생각이었으니 머리는 아마 다치지 않을 터였다. 등은 딱딱한 듯했다. 양탄자 위로 떨어져도 등은 아마 괜찮을 것이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반드시 나게 될 요란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에 문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는 않더라도 걱정은 하게 될 터였다. 그래도 해 보는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방법은 애쓰는 일이라기보다 놀이에 가까워서 그저 한 번씩 몸을 흔들기만 하면 되었고, 그렇게 그레고르가 벌써 몸의 반을 침대 밖으로 내밀었을 때, 누가 도와주러 온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간단할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힘센 사람 둘이면 넉넉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와 하녀를 떠올렸다. 두 사람은 그의 불룩한 등 밑에 팔을 밀어 넣어 그를 침대에서 벗겨 내듯 들어 올리고, 그 짐을 든 채 몸을 숙인 다음, 그가 바닥 위로 몸을 넘겨 뒤집는 동안 조심스럽게 참아 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바닥에서는 가는 다리들도 바라건대 쓸모를 찾을 터였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은 아예 접어 두더라도, 그가 정말 도와 달라고 소리쳐야 했을까? 이렇게 곤란한 처지인데도 그는 그 생각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조금만 세계 흔들어도 균형을 거의 잡을 수 없는 데까지 와 있었고, 5분 뒤면 일곱 시 15분이어서 이제 곧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회사에서 누가 왔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거의 굳어 버렸고, 그사이 가는 다리들은 그럴수록 더 바쁘게 춤을 추었다. 한순간 모든 것이 조용했다. "문을 안 여는군." 그레고르는 무슨 터무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물론 여느 때처럼 하녀가 단단한 걸음으로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손님이 건네는 첫인사만 듣고도 벌써 누구인지 알았다. 바로 지배인 자신이었다. 어째서 그레고르만 조금이라도 늦으면 대번에 엄청난 의심을 품는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벌을 받았단 말인가? 직원이란 직원은 다 하나같이 건달이란 말인가, 그들 가운데는 아침 몇 시간을 회사를 위해 쓰지 못했다고 양심의 가책으로 미칠 지경이 되어 정말로 침대를 떠날 수조차 없게 되는 충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애초에 그런 캐물음이 필요하기나 했다면, 견습 사환을 보내 물어보게 하는 것으로 정말 충분하지 않았단 말인가? 지배인이

몸소 와야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수상쩍은 일을 조사하는 것은 지배인의 지혜에만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죄 없는 온 가족에게 보여 주어야 했던 말인가? 그리고 그레고르는 제대로 결심을 했다가보다는 이런 생각에 빠져 흥분한 나머지 온 힘을 다해 침대 밖으로 몸을 내던졌다.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지만 요란하게 와장창 하는 소리는 아니었다. 양탄자가 떨어지는 충격을 조금 줄여 주었고, 등도 그레고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탄력이 있어서 그다지 귀에 띄지 않는 둔한 소리가 났다. 다만 머리를 충분히 조심스럽게 들지 못해 머리를 찼었다. 그는 화가 나고 아파서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양탄자에 비볐다.

"저 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왼쪽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기가 당한 것과 비슷한 일이 언젠가 지배인에게도 닥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보려 했는데, 그럴 가능성만큼은 사실 누구라도 인정해야 할 터였다. 그러나 그 물음에 거칠게 대꾸라도 하듯, 지배인은 옆방에서 이제 또박또박 몇 걸음을 내디디며 에나멜 장화를 빼적거렸다.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동생이 그레고르에게 알려 주려고 속삭였다. "오빠, 지배인님 오셨어." "알아." 그레고르는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누이동생이 알아들을 만큼 목소리를 높일 엄두는 나지 않았다.

"그레고르." 이번에는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배인님께서 오셔서 네가 왜 아침 기차로 떠나지 않았는지 물으신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게다가 너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신다. 그러니 문 좀 열어라. 방이 어질러져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실 게다." "안녕하십니까, 잠자 씨." 지배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상냥하게 외쳤다.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문에 대고 말하는 동안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배인님. 그렇지 않고서야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칠 리가 있겠어요! 저

애는 머릿속에 회사 일밖에 없어요. 저녁에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으니 제가 다 속이 상할 지경이에요, 이번에도 일주일이나 시내에 있었는데 저녁마다 집에 있었다니까요. 우리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들여다보고요. 실통 세공을 하는 게 저 애한테는 그나마 기분 전환이에요. 이를테면 두세 저녁 동안 작은 액자를 하나 깎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 방 안에 걸려 있으니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곧 보시게 될 거예요. 그나저나 지배인님이 와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애는 워낙 고집이 세서 우리끼리였으면 문을 열게 하지 못했을 텐데, 아침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틀림없이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곧 나갈게요." 그레고르는 느릿느릿 조심스럽게 말하고는, 오가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부인, 저로서도 달리는 설명이 되지 않는군요." 지배인이 말했다. "대단한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라고 할지 다행스럽게도라고 할지는 보기 나름입니다만, 가벼운 몸살쯤은 사업상 사정을 생각해서 그냥 이겨 내야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지배인님께서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느냐?" 성미 급한 아버지가 물으며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돼요."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옆방에는 거북한 침묵이 흘렀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동생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누이동생은 왜 다른 식구들한테 가지 않는 걸까? 아마 이제 막 침대에서 일어나 아직 옷도 입기 시작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대체 왜 우는 걸까? 그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들여보내지 않아서, 그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서, 그러면 사장이 묵은 빚을 갚으라고 다시 부모를 몰아세울 테니까? 그건 지금으로서는 아마 쓸데없는 걱정일 터였다. 그레고르는 아직 여기 있었고, 가족을 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지금이야 그가 양탄자 위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에게 지배인을 들여보내라고 진지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은 무례쯤이야 나중에 알맞은 핑계를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레고르를 당장 쫓아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레고르가 보기에는 울고 달래며 그를 들볶기보다 지금은 그를 가만 내버려 두는 편이 훨씬 이성적일 것 같았다. 하지만 다들 어찌 될지 몰라 애가 탔고,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구는 것도 용서할 만했다.

"잠자 씨." 이제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방에 틀어박혀 바리케이드를 치고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고, 부모님께 쓸데없는 큰 걱정을 끼치고, 이걸 지나가는 말로 덧붙이는 것입니다만, 회사 업무를 정말 전례 없이 소홀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해 말씀드리는 것이니, 당장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아주 진지하게 요청합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잠자 씨를 차분하고 분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별난 변덕을 내보이며 뽐내기 시작하실 작정인 모양이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사장님께서 잠자 씨의 결근에 대해 있을 법한 해명 하나를 슬쩍 내비치셨습니다. 얼마 전 잠자 씨께 맡기신 수금 건에 관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해명은 맞을 리가 없다고 거의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보니, 잠자 씨를 위해 조금이라도 나서 드릴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게다가 잠자 씨의 자리는 결코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단둘이 있을 때 말씀드릴 생각이었지만, 잠자 씨가 여기서 제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버리게 하시니, 부모님께서 아서서는 안 될 까닭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잠자 씨의 실적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장사가 특별히 잘될 철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철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잠자 씨,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제정신이 아닌 채 외쳤고, 흥분한 나머지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렸다. "지금 당장, 바로 열겠습니다. 가벼운 몸살에 현기증까지 나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아주 멀쩡합니다. 지금 막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조금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생각했던 것만큼 잘되지는 않는군요.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탈이 날 수 있을까요! 어제저녁만 해도 아주 멀쩡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십니다. 아니, 그보다는, 어제저녁에 벌써 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제 얼굴에 티가 났을 겁니다. 왜 그걸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누구나 집에 드러눕지 않고도 병을 이겨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법 아닙니까. 지배인님! 제 부모님을 봐주십시오! 지금 저를 나무라시는 일은 모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도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최근 주문서를 아마 읽어 보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덟 시 기차로라도 출장을 떠나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났습니다. 지배인님, 저 때문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도 곧 회사에 나가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전해 주시고, 사장님께 제 안부도 여쭙어 주십시오!"

그레고르는 이 모든 말을 허겁지겁 쏟아 내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거의 몰랐는데, 그러는 사이 침대에서 이미 익힌 솜씨 덕분인지 쉽게 옷장으로 다가가 있었고, 이제 옷장에 기대 몸을 일으켜 보려 했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정말로 모습을 보이고 지배인과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지금 이렇게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 무슨 말을 할지 몹시 알고 싶었다. 그들이 놀란다면 그레고르에게는 더 책임이 없으니 마음을 놓아도 되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차분히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 흥분할 까닭이 없고, 서두르기만 하면 정말로 여덟 시에는 역에 나가 있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미끄러운 옷장에서 몇 번 미끄러져 내렸지만, 마침내 마지막으로 한 번 몸을 획 추스르자 곳곳이 섰다. 아랫배의 통증은 아무리 타는 듯해도 더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가까이 있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던지듯 기대고, 가는 다리들로 그 가장자리를 붙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되었고, 입을 다물었다. 이제 지배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지배인이 부모에게 물었다. "설마 저 사람이 우리를 놀리는 건 아니겠지요?" "세상에." 어머니가 벌써 울먹이며 소리쳤다. "저 애가 어찌면 몹시 아픈데 우리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레테! 그레테!" "어머니?" 누이동생이 다른 쪽에서 소리쳤다. 두 사람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말을 주고받았다. "너 당장 의사한테 가야겠다. 그레고르가 아파. 어서 의사를 불러와. 지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거 들었니?" "짐승 소리였습니다." 지배인이 말했다. 어머니의 고향에 비하면 눈에 띄게 나직한 목소리였다. "안나! 안나!" 아버지가 현관방 너머 부엌에 대고 외치며 손뼉을 쳤다. "당장 열쇠공 불러와!" 그리고 벌써 두 처녀가 치맛자락을 사각거리며 현관방을 달려 나가서(누이동생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옷을 입었을까?) 현관문을 확 열어젖혔다. 문 닫히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큰 불행이 닥친 집에서 흔히 그러듯 문을 열어 둔 채 간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 자신에게는 말이 충분히 또렷하게, 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는데도 그랬다. 아마 귀가 익숙해진 탓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에게 무언가 단단히 탈이 났다는 것을

민게 되었고, 그를 도울 채비가 되어 있었다. 첫 조치들이 자신 있고 확실하게 내려진 것이 그에게는 흐뭇했다. 그는 다시 사람들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 것 같았고, 의사와 열쇠공 둘 다에게, 사실 둘을 딱히 가려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하고 놀라운 성과를 기대했다. 다가오는 결정적인 대화에 대비해 목소리를 되도록 맑게 하려고 그는 헛기침을 조금 했는데, 그 소리마저 어쩌면 사람의 기침과는 다르게 들릴지 모르고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자신도 더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죽여서 하려고 애썼다. 그사이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어쩌면 부모가 지배인과 식탁에 앉아 수군거리는지도 몰랐고, 어쩌면 다들 문에 기대 귀를 기울이는지도 몰랐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밀며 천천히 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의자를 놓고, 문에 몸을 던져 문에 기대 곳곳이 선 채 잠시 애쓰는 몸을 쉬었다. 가는 다리 끝의 볼록한 바닥에는 끈끈한 진이 조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입으로 자물쇠에 꽂힌 열쇠를 돌리는 일에 나섰다.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제대로 된 이가 없는 듯했다. 그럼 무엇으로 열쇠를 붙잡는단 말인가? 그 대신 턱은 물론 아주 튼튼했고, 그는 그 턱의 힘을 빌려 정말로 열쇠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입에서 갈색 액체가 나와 열쇠를 타고 흘러 바닥에 뚝뚝 떨어졌으니 틀림없이 어딘가 다친 모양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들어 보세요."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저 사람이 열쇠를 돌립니다." 그 말은 그레고르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에게 외쳐 주었어야 했다. "힘내라, 그레고르." 그들은 그렇게 외쳤어야 했다. "자꾸 다가가, 자물쇠에 바짝 붙어!" 그리고 모두가 자기가 애쓰는 모습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며, 그는 낼 수 있는 힘을 다 짜내어 정신없이 열쇠를 짹 물었다. 열쇠가 돌아가는 대로 그는 자물쇠 둘레를 찰칵 찰칵 맴돌았고, 이제는 입만으로 몸을 지탱한 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고 다시 온몸의 무게로 열쇠를 내리누르기도 했다. 마침내 자물쇠가 철컹 젖혀지는 한결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그러니까 열쇠공은 필요 없었군." 그리고 문을 활짝 열려고 머리를 문고리에 얹었다.

그는 문을 그렇게 열어야 했기 때문에, 문은 사실 이미 꽤 넓게 열렸는데도 그 자신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한쪽 문짝을 돌아 천천히 몸을 돌려야 했다. 방으로 들어서기 바로 앞에서 불품없이 벌러덩 나자빠지고 싶지 않으면 아주 조심해야 했다. 그가 아직 그 어려운 동작에 매달려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벌써 지배인이 "오!"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렸다. 바람이 뽕 하고 지나가는 소리 같았다. 이어 그는 문에 가장 가까이 있던 지배인이 벌린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한결같이 줄곧 그를 밀어내는 듯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것도 보았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와 있는데도 밤새 풀어 헤쳐져 높이 곤두선 머리를 한 채 거기 서 있었는데, 먼저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그레고르 쪽으로 두 걸음 다가가서, 둘레로 활짝 퍼지는 치마 한가운데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가슴에 폭 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으로 도로 밀어 넣으려는 듯 적의 어린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더니, 이어 자신 없는 듯 거실을 둘러보고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억센 가슴이 들썩이도록 울었다.

그레고르는 거실로 아예 들어가지 않고, 빗장을 단단히 지른 문짝에 안쪽에서 몸을 기댔다. 그래서 몸은 반쯤만 보이고 그 위로 옆으로 갸웃한 머리가 보였는데, 그는 그렇게 고개를 내밀고 다른 사람들 쪽을 엿보았다. 그사이 날이 훨씬 밝아져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끝없이 길게 이어진 거무스름한 잿빛 건물의 한 자락이 또렷이 서 있었다. 맞은편 병원이었다. 건물 정면을 딱딱하게 뚫고 들어간 창문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비는 아직 내렸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굵은 빗방울이 그야말로 한 방울씩 땅에 내던져지듯 떨어질 뿐이었다. 식탁에 아침 식기가 지나치게 많이 놓여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게는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여서 여러 신문을 읽으며 몇 시간이고 끌었기 때문이다. 바로 맞은편 벽에는 그레고르가 군대에 있던 시절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소위인 그가 군도에 손을 얹고 근심 없이 웃으며 자기 자세와 군복에 경의를 표하라고 요구하는 사진이었다. 현관방으로 난 문이 열려 있었고, 현관문도 열려 있어서 집 밖 층계참과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첫머리까지 내다보였다.

"자, 그럼." 그레고르는 자기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말했다. "곧 옷을 입고 견본을 꾸려서 떠날게요. 보내 주실 거죠? 보내 주실 거죠? 자,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스럽지 않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출장은 고되지만 저는 출장 없이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지배인님, 어디 가십니까? 회사로 가십니까?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시겠지요? 사람이 잠시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야말로 그 사람이 예전에 해낸 일을 떠올리고, 나중에 걸림돌이 치워지면 틀림없이 그만큼 더 부지런히, 더 정신을 모아 일하리라는 것을 헤아려 주셔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장님께 크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배인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저는 부모님과 누이동생도 걱정해야 합니다. 저는 궁지에 몰려 있지만, 다시 헤쳐 나갈 겁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는 말아 주십시오. 회사에서 제 편을 들어 주십시오! 다들 외판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외판원은 폐돈을 벌면서 좋은 세월을 보낸다고들 생각하는데, 그런 편견을 깊이 따져 볼 별다른 까닭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지배인님, 지배인님께서서는 다른 직원들보다 사정을 더 넓게 보십니다. 아니, 정말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사장님보다도 더 넓게 보십시오. 사장님은 경영주라는 처지 때문에 판단이 직원에게 불리한 쪽으로 쉽게 흐려지시니까요. 지배인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해의 거의 대부분을 회사 밖에서 지내는 외판원은 뒷공론과 우연한 일과 근거 없는 불평의 제물이 되기가 아주 쉽고, 그런 것에 맞서 자기를 지키기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출장을 마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야 이제 와서는 원인을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나쁜 결과를 제 몸으로 고스란히 겪게 되니까요. 지배인님, 제 말이 적어도 조금은 옳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 한마디라도 해 주시지 않고 가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처음 몇 마디를 꺼낼 때부터 이미 돌아서 있었고, 움찔거리는 어깨 너머로 입술을 비죽 내민 채 그레고르를 돌아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말하는 동안 한순간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그레고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방을 떠나지 말라는 은밀한 금령이 있더라도 한 것처럼 아주 조금씩 문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벌써 그는 현관방에 있었고,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발을 빼낼 때의 그 갑작스러운 몸짓을 보면 방금 발바닥을 데었다고 여길 만했다. 현관방에서 그는 오른손을 계단 쪽으로 멀리 뻗었다. 거기서 그야말로 이 세상 것이 아닌 구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는 회사에서 자기 자리가 극도로 위태로워지지 않으려면 지배인을 이런 기분으로 절대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는 이 모든 것을 그리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레고르가 이 회사에서 평생 먹고살 걱정이 없다고 굳게 믿게 되었고, 게다가 지금은 눈앞의 걱정엔 정신이 팔려 앞일을 내다보는 눈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앞을 내다보았다. 지배인을 붙잡아 진정시키고 설득해 마침내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레고르와 가족의 앞날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은가! 누이동생이 여기 있었더라면!

누이동생은 영리했다. 그레고르가 아직 태평하게 반듯이 누워 있을 때 벌써 울지 않았던가. 그리고 여자들 앞에서 약한 이 지배인은 틀림없이 누이동생이 이끄는 대로 따랐을 것이다. 누이동생이라면 현관문을 닫고 현관방에서 지배인을 달래 그 놀란 마음을 풀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이동생은 하필 여기 없었고, 그레고르 자신이 나서야 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아직 전혀 모른다는 것도, 자기 말을 사람들이 어찌면, 아니 아마도 또 알아듣지 못했으리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문짝을 떠나더니, 열린 틈으로 몸을 밀어 넣고, 벌써 층계참 난간을 우스꽝스럽게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는 지배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붙잡을 데를 찾다가 그만 작은 비명을 지르며 그 수많은 가는 다리 위로 곧장 엎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마자 그는 이날 아침 처음으로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는 다리들 밑에는 단단한 바닥이 있었고, 다리들은 그가 기쁘게 알아챘듯 완벽하게 말을 들었고, 심지어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애썼다. 그래서 그는 벌써 모든 괴로움이 마침내 다 나을 때가 바로 눈앞에 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가 억누른 움직임에 몸을 흔들거리며 어머니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어머니 바로 맞은편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그토록 낮을 잃고 있는 듯하던 어머니가 별안간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손가락을 짹 편 채 벌떡 뛰어오르며 "사람 살려요, 제발 사람 살려요!" 하고 외치더니, 그레고르를 더 잘 보려는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와는 거꾸로 정신없이 뒤로 달아났고, 뒤에 상이 차려진 식탁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가 식탁에 이르자 낮이 나간 듯 서둘러 그 위에 주저앉았고, 옆에서 엮어진 큰 주전자의 커피가 쿵쿵 양탄자에 쏟아지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나직이 말하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지배인은 한순간 그의 머리에서 아주 사라졌다. 그 대신 그는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자 몇 번이고 턱으로 허공을 덩석덩석 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 바람에 어머니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서 달아나 마주 달려오는 아버지 품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지금 부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배인은 벌써 계단에 있었고, 턱을 난간에 걸친 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되도록 확실히 따라잡으려고 힘껏 내달렸다. 지배인은 무언가 눈치챘는지 계단을 몇 칸씩 건너뛰어 사라졌지만, 그래도 "후우!" 하는 그의 외침은 계단통 전체에 울렸다. 안타깝게도 지배인의 이 도주는 지금까지 비교적 침착하던 아버지마저 완전히 혼란에 빠뜨린 듯했다. 아버지는 몸소 지배인을 뒤쫓거나 적어도 그레고르가 뒤쫓는 것을 막지 않는 대신, 지배인이 모자와 외투와 함께 의자 위에 두고 간 지팡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왼손으로 식탁에서 커다란 신문을 집어 들더니, 발을 쿵쿵 구르며 지팡이와 신문을 휘둘러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도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고, 애초에 그 비는 말을 알아듣는 이도 없었다. 그가 아무리 공손히 고개를 돌려도 아버지는 발을 더 세게 구를 뿐이었다. 저쪽에서는 어머니가 쌀쌀한 날씨인데도 창을 활짝 열어젖히고, 몸을 내밀어 창밖 멀리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골목과 계단통 사이로 거센 바람이 일어 창이 커튼이 펄럭이고, 식탁 위의 신문들이 바스락거리고, 낱장 몇 장이 바닥 위로 날려 갔다. 아버지는 사정없이 몰아붙이며 야만인처럼 쉿쉿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뒷걸음질에 아직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이지 아주 더디게 움직였다. 몸을 돌리기만 해도 된다면 금방 자기 방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몸을 돌리느라 시간을 끌면 아버지가 짜증을 낼까 두려웠고, 계다가 아버지 손에 든 지팡이가 언제라도 그의 등이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내리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결국 그레고르에게는 다른 수가 없었다. 뒷걸음질로는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설 새 없이
겹에 질려 결눈으로 아버지를 살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러나
실제로는 몹시 느릿느릿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의
선의를 알아챘는지, 그가 몸을 돌리는 동안에는 방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따금 멀리서 지팡이 끝으로 그의 회전을 지휘하기까지 했다. 아버지의
저 견딜 수 없는 씩씩 소리만 없었더라면! 그 소리에 그레고르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는 거의 다 돌아섰을 때, 줄곧 그 씩씩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만 착각하여 다시 조금 거꾸로 돌기까지 했다. 그러나
마침내 다행히 머리가 문 앞에 닿고 보니, 몸이 너무 넓적해서 그대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다. 지금 같은 상태의 아버지에게는 물론 다른 쪽
문짝을 열어 그레고르가 지나갈 만한 통로를 터 주자는 생각 따위는
털끝만큼도 떠오르지 않았고,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그레고르가 되도록
빨리 자기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밖에 없었다. 그레고르가 몸을
일으켜 어쩌면 그렇게 해서 문을 빠져나가는 데 필요한 번거로운 준비도
아버지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는 아무 걸림돌도
없다는 듯 이제 유난히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레고르를 앞으로
몰아냈는지도 몰랐다. 그레고르 뒤에서 나는 소리는 이미 아버지 한
사람의 목소리로는 들리지 않았고,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니어서
그레고르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문틈에 몸을
밀어 넣었다. 몸의 한쪽이 들리면서 그는 문틈에 비스듬히 끼었고, 한쪽
옆구리가 온통 쓸려 벗겨지고, 하얀 문에는 흉한 얼룩이 남았다. 그는 곧
꼭 끼어 혼자서는 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한쪽 가는 다리들은 위쪽
허공에 매달려 떨고, 다른 쪽 다리들은 바닥에 짓눌려 아팠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이제는 정말이지 구원이나 다름없는 힘찬 일격으로
그를 떠밀었고, 그는 피를 몹시 흘리며 멀리 방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문이 지팡이로 쿵 닫히고, 마침내 조용해졌다.

제2부

그레고르는 해 질 녘이 되어서야 기절한 것처럼 무거운 잠에서 깨어났다. 충분히 쉬고 폭 잤다는 느낌이 들었으니 방해하는 것이 없었더라도 그리 늦지 않게 깨어났을 터였지만, 누군가 서둘러 지나가는 발소리와 현관방으로 난 문을 조심스럽게 닫는 소리에 잠이 깬 것만 같았다. 전차 불빛이 천장과 가구의 윗부분 여기저기에 희미하게 비쳐 있었지만, 아래쪽 그레고르가 있는 곳은 캄캄했다. 그는 이제야 그 쓸모를 알아 가기 시작한 더듬이로 아직 서툴게 앞을 더듬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려고 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밀고 나아갔다. 왼쪽 옆구리는 기분 나쁘게 당기는 길쭉한 흉터 하나가 된 것 같았고, 그는 두 줄로 난 다리로 그야말로 절뚝거리며 가야 했다. 게다가 다리 하나는 오전의 소동 통에 크게 다쳐서 죽은 듯이 뒤에 질질 끌려 왔다. 하나만 다친 것이 거의 기적이었다.

문 앞에 와서야 그는 무엇이 자기를 그리로 끌어당겼는지 알았다. 먹을 것의 냄새였다. 거기에는 신선한 우유를 가득 채운 사발이 하나 놓여 있었고, 우유에는 흰 빵을 작게 썬 조각들이 떠 있었다. 그는 아침보다 더 배가 고팠으므로 기빠서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고, 곧바로 눈 위까지 잠길 만큼 머리를 우유 속에 폭 담갔다. 그러나 곧 실망해서 머리를 다시 빼냈다. 성치 않은 왼쪽 옆구리 때문에 먹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그는 온몸이 씹씹거리며 함께 움직여야만 먹을 수 있었다), 어느 때 같으면 가장 좋아하는 음료여서 누이동생이 틀림없이

그 때문에 들여놓았을 우유가 전혀 입에 맞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거의 역겨워하며 사발에서 고개를 돌리고 방 한가운데로 기어 돌아갔다.

문틈으로 보니 거실에는 가스등이 켜져 있었는데, 어느 때 같으면 이 시간에 아버지가 오후에 나오는 신문을 어머니에게, 때로는 누이동생에게도 목소리를 높여 읽어 주곤 했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기가 누이동생이 늘 이야기해 주고 편지에도 써 보내던 그 신문 읽기는 요즘 들어 아예 하지 않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집이 틀림없이 비어 있지 않은데도 사방이 그렇게 조용했다. "우리 식구들은 참 조용히도 사는군."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하며 꼼짝 않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고, 부모와 누이동생에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그런 삶을 누리게 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몹시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평온과 넉넉함과 만족이 꿈쩍하게 끝나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그레고르는 차라리 몸을 움직여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긴 저녁 동안 한 번은 한쪽 옆문이, 한 번은 다른 쪽 옆문이 살짝 틈이 날 만큼 열렸다가 금세 다시 닫혔다. 누군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망설임도 그만큼 컸던 모양이다. 그레고르는 이제 거실 문 바로 앞에 멈춰 서서, 머뭇거리는 그 방문객을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거나 적어도 그게 누구인지만이라도 알아낼 작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그레고르는 헛되이 기다렸다. 아침에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다들 그에게 들어오려 했는데, 이제 그가 문 하나를 열었고 다른 문들도 낮 동안 열린 게 분명한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열쇠도 이제는 바깥쪽에 꽂혀 있었다.

밤이 아주 깊어서야 거실 불이 꺼졌는데, 셋이 이제 모두 발끝으로 걸어 멀어지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으니 부모와 누이동생이 그때까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제 아침까지는 틀림없이

아무도 그레고르에게 들어오지 않을 터였다. 그러니 그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새로 꾸려야 할지 방해받지 않고 궁리할 시간이 넉넉했다. 그러나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만 하는 이 천장 높고 웅한 방이 그는 왠지 무서웠고, 그 까닭은 알아낼 수 없었다. 다섯 해 동안 자기가 살아온 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반쯤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돌려,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소파 밑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거기서는 등이 조금 눌리고 머리를 더는 들 수 없었는데도 금세 아주 아늑했고, 다만 몸이 너무 넓적해서 소파 밑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다.

그는 거기서 밤을 꼬박 새웠는데, 밤의 일부는 허기 때문에 자꾸 소스라쳐 깨는 선잠 속에서, 일부는 걱정과 막연한 희망 속에서 보냈다. 그러나 걱정도 희망도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면서, 지금 같은 상태로는 어차피 가족에게 끼칠 수밖에 없는 불편을 인내와 더없는 배려로 가족이 건달 만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른 아침, 아직 밤이나 다름없을 때 벌써 그레고르는 방금 내린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 시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누이동생이 옷을 거의 다 입은 차림으로 현관방 쪽에서 문을 열고 잔뜩 긴장한 채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누이동생은 그를 바로 찾지 못했지만, 소파 밑에 있는 그를 알아보자(맏소사, 그는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날아가 버렸을 리는 없지 않은가) 너무 놀란 나머지 스스로를 억누르지 못하고 밖에서 문을 도로 쿵 닫아 버렸다. 그러나 자기가 한 짓을 뉘우치기라도 하듯 곧바로 다시 문을 열고, 중환자나 아예 낯선 사람의 방에라도 들어가듯 발끝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머리를 소파 가장자리 바로 앞까지 내밀고 누이동생을 지켜보았다. 누이동생은 그가 우유를 그대로 남겨 둔 것을, 그것도 결코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챌까, 그리고 그에게 더 잘 맞는 다른 음식을

들여올까? 누이동생이 스스로 그러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을 일깨워 주느니 차라리 굶어 죽을 생각이었다. 사실은 소파 밑에서 튀어나가 누이동생 발치에 몸을 던지고 무엇이든 맛있는 먹을 것을 달라고 빌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북받쳤는데도 그랬다. 그러나 누이동생은 돌레에 우유가 조금 옆질러졌을 뿐 아직 가득한 사발을 보고 곧 놀라워하더니, 맨손이 아니라 형뿔 조각으로 그것을 바로 집어 들어 내갔다. 그레고르는 누이동생이 그 대신 무엇을 가져올지 몹시 궁금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 보았다. 그러나 누이동생이 착한 마음으로 실제로 한 일은 그로서는 결코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이동생은 그의 입맛을 알아보려고 갖가지 먹을 것을 골고루 흰 신문지 위에 펼쳐 가져왔다. 반쯤 썩은 묵은 채소가 있었고, 저녁 식사 때 남은 뼈다귀에는 하얀 소스가 굳어 엉겨 붙어 있었고, 건포도와 아몬드 몇 알, 그레고르가 이틀 전에 못 먹겠다고 선언한 치즈 한 덩이, 마른 빵 한 조각, 버터 바른 빵 한 조각,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친 빵 한 조각이 있었다. 그 밖에도 누이동생은 이 모든 것 곁에, 아마 아예 그레고르 몫으로 정해 둔 듯한 그 사발에 물을 부어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자기 앞에서는 먹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섬세한 마음씨로 서둘러 자리를 비켜 주고 열쇠까지 돌려 잠갔다. 그레고르가 마음껏 편하게 굴어도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려는 배려였다. 이제 먹을 차례가 되자 그레고르의 가는 다리들이 바르르 떨렸다. 게다가 상처도 이미 다 나은 게 틀림없었다. 그는 더는 거북한 데를 느끼지 않았고, 그제 놀라워서, 한 달도 더 전에 칼에 손가락을 아주 조금 베었는데 그 상처가 그저께까지도 꽤 아팠던 것을 떠올렸다. "이제는 내가 덜 예민해진 걸까?" 그는 생각하며 벌써 치즈를 게걸스럽게 빨았다. 다른 어떤 음식보다 먼저 대번에 그를 세차게 끌어당긴 치즈였다. 그는 만족스러워 눈물까지 글썽이며 치즈와 채소와 소스를 잇달아 재빨리

먹어 치웠다. 반면 신선한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고 그 냄새조차 견딜 수 없어서, 먹고 싶은 것들을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다. 그가 벌써 다 먹고 그 자리에 그저 늘어져 누워 있을 때, 누이동생이 물러나라는 신호로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그는 거의 잠들려던 참이었지만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다시 소파 밑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러나 누이동생이 방에 있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소파 밑에 머물러 있으려면 자기를 크게 이겨 내야 했다. 실컷 먹은 탓에 몸이 조금 불룩해져서 그 좁은 곳에서는 숨을 쉬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질식 발작을 일으키며 조금 튀어나온 눈으로 지켜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누이동생은 남은 찌꺼기뿐 아니라 그레고르가 손도 대지 않은 음식까지 그것들도 이제 쓸모가 없다는 듯 빗자루로 쓸어 모으더니, 모든 것을 서둘러 양동이에 쏟아붓고 나무 뚜껑을 덮어 다 들고 나갔다. 누이동생이 돌아서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기어 나와 몸을 쪽 펴고 부풀렸다.

이렇게 그레고르는 이제 날마다 먹을 것을 받았다. 한 번은 부모와 하녀가 아직 자고 있는 아침에, 두 번째는 식구들의 점심 식사가 끝난 뒤였는데, 그때도 부모는 잠깐 낮잠을 잤고 하녀는 누이동생이 무슨 심부름을 시켜 내보냈기 때문이다. 부모도 그레고르가 끓어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그가 먹는 일을 귀동냥 이상으로 아는 것은 견디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누이동생이 아마 작은 것일지언정 슬픔 하나라도 덜어 주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실제로 부모는 이미 괴로울 만큼 괴로웠으니까.

그 첫날 오전에 무슨 핑계로 의사와 열쇠공을 집에서 다시 내보냈는지 그레고르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누이동생조차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누이동생이 방에 있을 때

이따금 그 한숨 소리와 성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나중이야, 누이동생이 모든 것에 조금 익숙해진 뒤에야(물론 완전히 익숙해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이따금 다정한 뜻으로 한 말이나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말을 주워들었다. "오늘은 입에 맞았나 봐." 그레고르가 음식을 말끔히 먹어 치웠을 때 누이동생은 그렇게 말했고, 점점 더 잦아진 반대의 경우에는 거의 슬픈 듯이 말하곤 했다. "또 다 남겼네."

그레고르는 직접 새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옆방들에서 이것저것 엿들었고, 어디서든 말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곧장 그쪽 문으로 달려가 온몸을 문에 바싹 붙였다. 특히 처음 얼마 동안은 비록 몰래일망정 어쨌든 그의 이야기가 아닌 대화가 없었다. 이를 동안은 끼니때마다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끼니 사이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혼자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을 아주 비울 수도 없었으므로 늘 적어도 두 식구는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녀는, 벌어진 일을 무엇을 얼마나 알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바로 첫날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당장 내보내 달라고 빌었고, 15분 뒤 작별할 때는 이 집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라도 되는 듯 내보내 준 데 대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에게도 털끝만큼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무시무시한 맹세를 했다.

이제 누이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해야 했다. 하기야 그건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다들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권해도 소용없이 "됐어, 고마워" 같은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는 소리를 거듭 들었다. 마시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누이동생은 아버지에게 맥주를 드시겠느냐고 자주 묻고 자기가 직접 사 오겠다고 다정하게 나섰으며,

아버지가 잠자코 있으면 마음에 걸리는 데가 없도록 관리인 아주머니를 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 아버지는 마침내 크게 "아니다" 하고 말했고, 그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았다.

첫날부터 벌써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동생에게 재산 형편과 앞날의 전망을 낱알이 설명했다. 이따금 식탁에서 일어나, 다섯 해 전 사업이 망했을 때 건져 낸 작은 베르트하임 금고에서 무슨 증서나 장부를 꺼내 왔다. 복잡한 자물쇠를 열고 찾는 것을 꺼낸 다음 다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이 설명 가운데 일부는 그레고르가 갇힌 몸이 된 뒤로 처음 듣는 반가운 이야기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 사업에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 왔다. 적어도 아버지는 그와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레고르도 물론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 무렵 그레고르는 온 가족을 완전한 절망에 빠뜨린 사업의 불행을 가족이 되도록 빨리 잊게 하려고 모든 것을 거는 데만 마음을 썼다. 그래서 그는 그때 유난히 불타는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말단 점원에서 외판원이 되었는데, 외판원은 물론 돈벌이의 길이 전혀 달랐고, 일한 성과가 곧바로 수수료라는 꼴로 현금이 되어, 그 돈을 집에서 놀라고 기뻐하는 가족 앞 식탁 위에 내놓을 수 있었다. 좋은 시절이었다. 그 뒤로 그레고르가 온 가족의 살림을 감당할 만큼 돈을 벌었고 실제로 감당했는데도, 적어도 그때만큼 빛나는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았다. 가족도 그레고르도 그저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가족은 고맙게 돈을 받았고 그는 기꺼이 돈을 내놓았지만, 이렇다 할 따듯함은 더는 생기지 않았다. 누이동생만은 그래도 그레고르와 가깝게 남아 있었다. 그레고르와 달리 음악을 무척 좋아하고 바이올린을 마음에 와닿게 켤 줄 아는 누이동생을, 그 일에 틀림없이 들 큰 비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에 음악원에 보내는 것이 그의 남모르는 계획이었다. 비용은 다른 길로 메우면 될 터였다. 그레고르가 시내에 잠깐씩 머무는 동안

누이동생과 이야기하다가 음악원 이야기가 자주 나왔지만, 언제나 이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꿈으로만 나왔고, 부모는 그런 천진한 이야기조차 듣기 싫어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아주 확고하게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고, 성탄 전야에 그것을 엄숙하게 밝힐 작정이었다.

지금 같은 상태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생각들이, 그가 문에 킁킁이 달라붙어 엿듣는 동안 머릿속을 스쳐 갔다. 이따금 온몸이 지쳐 더는 귀를 기울일 수 없어서 머리를 무심코 문에 툭 부딪혔다가 곧 다시 머리를 바로 세웠다. 그렇게 낸 작은 소리마저 옆방에 들려 다들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저 애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원."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분명히 문 쪽을 보고 말했고, 그제야 끊겼던 대화가 차츰 다시 이어졌다.

아버지는 설명하면서 같은 말을 자주 되풀이했다. 아버지 자신이 오랫동안 이런 일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탓도 있고, 어머니가 무엇이든 한 번에 다 알아듣지 못한 탓도 있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이제 넉넉히 알게 되었다. 온갖 불행을 겪어도 옛날 재산이, 물론 아주 적기는 하지만 아직 남아 있었고, 손대지 않은 이자가 그사이 그것을 조금 불러 놓았다. 게다가 그레고르가 달마다 집에 가져온 돈도(그 자신은 굴텐 몇 닢만 제 몫으로 남겼다) 다 쓰이지 않고 모여 작은 밑천이 되어 있었다. 그레고르는 문 뒤에서 뜻밖의 이 신중함과 알뜰함이 반가워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 남은 돈으로 아버지가 사장에게 진 빚을 더 갚아 나갈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 그가 이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날이 훨씬 가까웠겠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해 둔 대로가 틀림없이 더 나왔다.

그러나 이 돈은 가족이 이를테면 이자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가족을 한 해, 길어야 두 해 먹여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대서는 안 되고 급할 때를 위해

떼어 두어야 할 돈일 뿐이었다. 살아갈 돈은 벌어야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건강하기는 해도 늙은 사람이었고, 벌써 다섯 해째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어쨌든 자신을 크게 믿을 수 없었다. 고생스럽기만 하고 이룬 것은 없었던 그의 삶에서 처음 맞은 휴가였던 이 다섯 해 동안 그는 살이 많이 썬서 몸이 꽤 둔해졌다. 그러면 천식을 앓아 집 안을 한 바퀴 걷기만 해도 힘들어하고, 이틀에 한 번은 숨이 차서 열린 창가의 소파에서 하루를 보내는 늙은 어머니가 이제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열일곱 살이라 아직 어린애이고, 예쁘게 차려입고 늦잠 자고 살림을 거들고 소박한 놀이 몇 가지에 끼고 무엇보다 바이올린을 켜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마땅히 누려야 할 누이동생이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인가? 돈벌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레고르는 언제나 먼저 문에서 떨어져 문 옆에 있는 서늘한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부끄러움과 슬픔으로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그 긴 밤을 꼬박 그 위에 누워 한숨도 자지 않고 몇 시간이고 가죽을 긁기만 했다. 아니면 큰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의자 하나를 창가로 밀고 가서 창턱으로 기어 올라가, 의자에 몸을 버틴 채 창에 기대곤 했는데, 예전에 창밖을 내다보면 느끼던 해방감을 어렴풋이나마 떠올리려는 것일 뿐이었음이 분명했다. 실제로 그는 날이 갈수록 조금만 떨어진 것도 점점 더 흐릿하게 보았다. 예전에는 너무 자주 보여서 저주하던 맞은편 병원이 이제는 아예 보이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영락없는 도시 한복판인 샤를로테 거리에 산다는 것을 똑똑히 알지 못했다면, 창밖으로 잿빛 하늘과 잿빛 땅이 분간할 수 없게 하나로 엉긴 황무지를 내다보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몰랐다. 눈치 빠른 누이동생은 의자가 창가에 놓여 있는 것을 두 번 보았을 뿐인데, 그 뒤로는 방을 치우고 나면 매번 의자를 도로 창가에 정확히 밀어다 놓았고, 그때부터는 안쪽 창문까지 열어 두었다.

누이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누이동생이 그를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에 고맙다고 말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는 누이동생의 수고를 한결 쉽게 견뎌낼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으므로 그는 그 일로 괴로웠다. 누이동생은 물론 이 모든 일의 거북함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우려고 애썼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일은 물론 더 잘되었지만, 그레고르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을 훨씬 더 정확히 꿰뚫어 보게 되었다. 누이동생이 들어오는 것부터가 그에게는 끔찍했다. 누이동생은 들어오자마자,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그레고르의 방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토록 신경을 쓰면서도 문을 닫을 겨를도 없이 곧장 창가로 달려가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듯 서두르는 손길로 창을 확 열어젖히고는, 아무리 추운 날에도 한동안 창가에 서서 숨을 깊이 쉬었다. 이렇게 달려가고 소란을 피워 누이동생은 날마다 두 번씩 그레고르를 놀라게 했다. 그동안 내내 그는 소파 밑에서 떨었는데, 그레고르가 있는 방에 창을 닫고 머무를 수만 있었다면 누이동생이 틀림없이 기꺼이 그런 일은 면하게 해 주었으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다.

한번은,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아마 벌써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라 누이동생에게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고 새삼 놀랄 이렇다 할 까닭도 더는 없을 때였는데, 누이동생이 여느 때보다 조금 일찍 왔다가 그레고르가 꿈쩍 않고, 그야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기 딱 좋게 몸을 세운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과 마주쳤다. 그레고르가 그렇게 서 있는 바람에 창을 바로 열 수 없었으니, 누이동생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레고르는 뜻밖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누이동생은 들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움찔 물러서며 문을 닫아 버렸다. 낮선 사람이 보았다면 그레고르가 누이동생을 노리고 숨어 있다가 물려고 했다고 생각했을 법했다. 그레고르는 물론 곧바로 소파 밑에 숨었지만, 누이동생이 다시 올 때까지 한낮이 되도록 기다려야 했고, 누이동생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그 일로, 자기 모습이 누이동생에게 아직도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견딜 수 없을 수밖에 없으며, 그가 소파 밑으로 내민 몸의 작은 부분만 보고도 달아나지 않으려면 누이동생이 아마 무척 애써 자기를 이겨 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누이동생에게 그런 모습마저 보이지 않으려고, 그는 어느 날 등에 흠이불을 지고 소파로 옮겼다. 그 일에 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몸이 완전히 가려져서 누이동생이 몸을 굽혀도 그를 볼 수 없게 흠이불을 매만져 놓았다. 누이동생이 보기에 이 흠이불이 필요 없었다면 치워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레고르가 이렇게 자기를 꼼꼼 가두는 것을 즐거워할 리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했으니까. 그러나 누이동생은 흠이불을 그대로 두었고, 그레고르는 누이동생이 이 새 설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려고 한번은 머리로 흠이불을 조심스럽게 조금 들어 올렸을 때, 고마워하는 눈길을 엿본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다.

처음 두 주 동안 부모는 차마 그에게 들어오지 못했다. 그레고르는 부모가 누이동생이 지금 하는 일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지금까지 부모는 누이동생이 좀 쓸모없는 아이로 보여 자주 못마땅해하던 터였다.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누이동생이 방을 치우는 동안 그레고르의 방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많았고, 누이동생은 나오자마자 방이 어떤 모습인지, 그레고르가 무엇을 먹었는지, 이번에는 어떻게 굴었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나아진 기미가 보이는지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야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비교적 일찍부터 그레고르를 보러 들어오려 했지만, 아버지와 누이동생이 처음에는 이치를 들어 말렸고, 그레고르는 그 이치에 아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전적으로 수긍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머니를 억지로 붙들어야 했고, 어머니가 "그레고르한테 가게 해 줘! 내 불쌍한 아들이란 말이야! 내가 그 애한테

가야 한다는 걸 왜 모르는 거야?" 하고 외치면, 그레고르는 어쩌면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날마다는 아니고,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 번쯤. 어머니는 누이동생보다 모든 것을 훨씬 잘 알았으니까. 누이동생은 그 모든 용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애일 뿐이었고, 결국은 어쩌면 어린애다운 경솔함에서 이토록 무거운 일을 떠맡았는지도 몰랐다.

그레고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던 바람은 곧 이루어졌다. 낮 동안 그레고르는 부모를 배려해서라도 창가에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몇 제곱미터 되지 않는 바닥에서는 기어다닐 데도 많지 않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은 밤에도 견디기 힘들었고, 먹는 일도 곧 털끝만큼의 즐거움도 주지 못하게 되어서, 그는 기분 전환 삼아 벽과 천장을 이리저리 가로세로 기어다니는 버릇을 들였다. 특히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좋아했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숨이 한결 자유로웠고, 몸에 가벼운 흔들림이 지나갔다. 그리고 거기 천장에서 거의 행복하게 넋을 놓고 있다가, 그만 자기도 놀랄 만큼 발을 놓아 버려 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물론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몸을 다룰 수 있어서 그렇게 높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았다. 누이동생은 그레고르가 찾아낸 이 새로운 놀이를 곧 알아챘다. 그는 기어다니며 여기저기 끈끈한 진 자국을 남겼으니 말이다. 그러자 누이동생은 그레고르가 최대한 넓게 기어다닐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 걸리는 가구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옷장과 책상을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누이동생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도와 달라고 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하녀는 틀림없이 돕지 않았을 것이다. 열여섯 살쯤 된 이 하녀는 전에 있던 요리사가 그만둔 뒤로도 용감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부엌문을 줄곧 잠가 두고 특별히 부를 때만 열어도 되게 해 달라고 사정해 허락을 받은 터였다. 그러니

누이동생에게는 아버지가 없을 때 어머니를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흥분과 기쁨에 차서 소리치며 왔지만,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먼저 누이동생이 물론 방 안이 모두 괜찮은지 살펴보고 나서야 어머니를 들어오게 했다. 그레고르는 허겁지겁 흠이불을 더 깊이, 주름을 더 많이 잡아 끌어내려서, 모든 것이 정말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흠이불처럼 보였다. 그레고르는 이번에도 흠이불 밑에서 엿보지 않았다. 어머니를 당장 이번에 보는 것은 단념했고, 어머니가 마침내 와 준 것만으로 기뻐다. "들어오세요, 안 보여요." 누이동생이 말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끄는 모양이었다. 이어 그레고르는 연약한 두 여인이 그래도 무거운 낡은 옷장을 제자리에서 밀어 옮기는 소리와, 누이동생이 무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은 듣지 않고 누이동생이 줄곧 일의 대부분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소리를 들었다. 일은 아주 오래 걸렸다. 15분쯤 일한 뒤 어머니는 옷장을 그냥 여기 두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첫째로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끝내지 못할 테고 옷장을 방 한가운데 두면 그레고르가 다닐 길을 다 막아 버릴 것이며, 둘째로 가구를 치워 주는 것이 그레고르에게 좋은 일인지도 전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어머니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인 듯했다. 텅 빈 벽을 보니 어머니는 그야말로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레고르도 오래전부터 방의 가구에 익숙해 있으니 빈방에서는 버림받은 느낌이 들 텐데, 왜 그레고르라고 그런 느낌이 없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그러면 말이다." 어머니는 아주 나직이 말을 맺었다. 어머니는 아예 거의 속삭이듯 말했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그레고르가 목소리의 울림조차 듣지 않게 하려는 듯했다. 그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가구를 치워서,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모두 버리고 저 애를 아무 배려 없이 저 혼자 내버려 둔다는 걸 보여 주는 것 같지 않니? 내 생각엔

방을 예전 그대로 지켜 두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야 그레고르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인 걸 보고 그동안의 일을 그만큼 쉽게 잊을 수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그레고르는, 사람이 직접 말을 걸어 주는 일이 전혀 없는 데다 가족 한가운데서 단조로운 생활을 해 온 탓에 이 두 달 동안 자기 머리가 이상해졌던 게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방이 텅 비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었던 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물려받은 가구로 아늑하게 꾸민 따뜻한 방을 동굴로 바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던 말인가? 물론 그러면 사방으로 거침없이 기어다닐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이었던 자기 과거를 빠르게, 깡그리 잊어버리면서? 그는 지금도 벌써 잊어버릴 지경이었고, 오랫동안 듣지 못한 어머니의 목소리만이 그를 흔들어 깨웠을 뿐이지 않은가. 아무것도 치워서 안 되었다. 모든 것이 남아 있어야 했다. 가구가 그의 상태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그는 잃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구 때문에 의미 없이 이리저리 기어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큰 이득이었다.

그러나 누이동생은 안타깝게도 생각이 달랐다. 누이동생은,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레고르의 일을 의논할 때면 부모 앞에서 특별한 전문가로 나서는 버릇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머니의 충고는 누이동생에게, 처음에 생각했던 옷장과 책상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소파를 빼고는 가구를 모조리 치워야 한다고 고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물론 누이동생이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것은 어린애다운 오기와 요즘 들어 그토록 뜻밖에 힘들게 얻은 자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누이동생은 그레고르가 기어다니는 데 넓은 공간이 필요한 반면, 보이는 한에서는 가구를 조금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눈여겨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면 어떤 기회에든 만족을 찾으려

드는 그 또래 처녀들의 들뜬 마음도 한몫했는지 모르고, 그레테는 그 마음에 끌려 그레고르의 처지를 더 섬뜩하게 만들어 놓고 그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싶어졌는지도 몰랐다. 그레고르 혼자 텅 빈 벽을 다스리는 방에는 그레테 말고는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설 엄두를 내지 못할 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이동생은 어머니의 말에도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어머니는 이 방에서는 그저 불안해서 갈피를 못 잡는 듯하더니 곧 입을 다물고 누이동생을 도와 힘닿는 대로 옷장을 밖으로 날랐다. 뭐, 옷장은 급하면 그레고르도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책상만은 남아 있어야 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끙끙대며 밀어 대는 옷장을 들고 방을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게, 될 수 있는 대로 배려하며 끼어들 수 있을지 보려고 소파 밑에서 머리를 쭉 내밀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맨 먼저 돌아온 사람은 하필 어머니였고, 그레테는 옆방에서 옷장을 끌어안고 혼자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는데, 물론 옷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모습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면 병이 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로 소파 반대쪽 끝까지 서둘러 물러났지만, 홀이불 앞쪽이 조금 움직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눈치채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머니는 멍칫하더니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그레테에게 돌아갔다.

그레고르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구 몇 점을 옮길 뿐이라고 거둬 자기에게 말했지만, 두 여인이 이렇게 오가는 것, 서로 짧게 주고받는 외침, 가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사방에서 부풀어 오르는 큰 소동처럼 그를 덮친다는 것을 곧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머리와 다리를 아무리 꼭 끌어당기고 몸을 바닥에 바짝 붙여도 이 모든 것을 오래 견디지 못하리라고 어쩔 수 없이 혼잣말을 해야 했다. 그들은

그의 방을 비우고, 그가 아끼는 것을 모조리 앗아 가고 있었다. 실톱과 다른 연장들이 들어 있던 옷장은 벌써 내갔고, 이제는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던 책상을 들썩이고 있었다. 그가 상업 학교 학생일 때, 시민 학교 학생일 때, 아니 벌써 초등학생일 때부터 숙제를 하던 그 책상을. 이제 그에게는 두 여인의 선의를 따져 볼 겨를이 정말로 없었다. 게다가 그는 두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거의 잊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쳐서 이미 말없이 일하고 있었고, 무거운 발소리만 들렸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뛰쳐나갔다. 두 여인은 마침 옆방에서 숨을 좀 돌리려고 책상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무엇부터 구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어서 달리는 방향을 네 번이나 바꾸다가, 이미 텅 빈 벽에 온통 모피로 감싼 여인의 그림이 유난히 눈에 띄게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기어 올라가 유리에 몸을 바짝 붙였다. 유리는 그를 붙들어 주었고 뜨거운 배에 기분 좋았다. 적어도 그레고르가 지금 온통 가리고 있는 이 그림만은 이제 틀림없이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터였다. 그는 두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려고 거실 문 쪽으로 고개를 비틀었다.

두 사람은 그리 오래 쉬지 않고 벌써 다시 왔다. 그레테는 어머니를 팔로 감싸 안고 거의 떠메다시피 했다. "자, 이제 뭘 내갈까요?" 그레테가 말하며 둘레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레테의 눈길이 벽에 붙은 그레고르의 눈길과 마주쳤다. 아마 어머니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레테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레테는 어머니가 둘러보지 못하게 얼굴을 어머니 쪽으로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영겁결에 말했다. "가요, 잠깐 거실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레테의 속셈이 그레고르에게는 뻔히 보였다.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나서 그를 벽에서 쫓아 내릴 생각이었다. 그래, 해 볼 테면 해 보라지! 그는 자기 그림 위에 올라앉아 그것을 내주지 않았다.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로 뛰어오를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레테의 말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불안하게 했다. 어머니는 옆으로 비켜서다가 꽃무늬 벽지 위의 커다란 갈색 얼룩을 보았고, 자기가 보는 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찌지는 섀목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외치더니,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두 팔을 벌린 채 소파 위로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빠, 너 정말!" 누이동생이 주먹을 쳐들고 매서운 눈길로 외쳤다. 변신한 뒤로 누이동생이 그에게 직접 건넨 첫마디였다. 누이동생은 기절한 어머니를 깨울 만한 약을 가져오려고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레고르도 돕고 싶었다. 그림을 구할 시간은 아직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유리에 꼭 달라붙어 있어서 억지로 몸을 떼어 내야 했고, 그러고는 예전처럼 누이동생에게 무슨 조언이라도 해 줄 수 있다는 듯 그도 옆방으로 달려갔지만, 결국 누이동생 뒤에 하릴없이 서 있어야 했다. 누이동생은 이런저런 작은 병을 뒤지다가 돌아서서 그를 보고 또 한 번 기겁했고, 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 하나가 그레고르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무슨 독한 약이 그의 둘레로 흘렀다. 그레테는 이제 더 지체하지 않고 들 수 있는 만큼 작은 병들을 집어 들고 어머니에게로 달려 들어가더니 발로 문을 차서 닫았다. 이제 그레고르는 어쩌면 자기 탓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문 하나로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하는 누이동생을 쫓아내지 않으려면 문을 열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리고 자책과 걱정에서 달리며 그는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벽이고 가구고 천장이고 모든 것을 기어다니다가, 마침내 방 전체가 그의 둘레로 빙빙 돌기 시작하자 절망에 빠져 큰 식탁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기진맥진해 누워 있었고, 사방이 조용했다. 어쩌면 좋은 징조인지도 몰랐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녀는 물론 부엌에 틀어박혀 있었으므로 그레테가 문을 열어 가야

했다. 아버지였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그레테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그레테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는지 둔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기절하셨는데,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오빠가 뛰쳐나왔어요."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늘 그렇게 말했잖니. 그런데 너희 여자들은 도무지 말을 안 들어."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그레테의 너무 짧은 전갈을 잘못 알아듣고 그레고르가 무슨 난폭한 짓이라도 저질렀다고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사정을 밝힐 시간도 방법도 없었으니 그레고르는 이제 아버지를 달래 보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 문으로 달아나 문에 몸을 바짝 붙였다. 아버지가 현관방에서 들어서자마자, 그레고르가 당장 자기 방으로 돌아갈 더없이 좋은 뜻을 품고 있으니 그를 도로 몰아넣을 필요 없이 문만 열어 주면 곧 사라지리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미묘한 것을 알아챌 기분이 아니었다. "아!" 아버지는 들어서자마자 화가 나는 동시에 기쁘기라도 한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레고르는 문에서 머리를 떼어 아버지 쪽으로 쳐들었다. 지금 저기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는 정말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기가 요즘 그는 새로 시작한 기어다니기에 빠져 예전처럼 집 안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 쓰는 것을 소홀히 했으니, 달라진 사정과 마주칠 각오는 사실 해 두었어야 했다. 그래도, 그래도, 저게 아직 아버지란 말인가? 예전에 그레고르가 출장을 떠날 때면 침대 속에 지친 채 파묻혀 누워 있던 그 사람, 그가 돌아오는 저녁이면 잠옷 차림으로 안락의자에 앉아 맞아 주던 그 사람,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반갑다는 표시로 그저 두 팔만 들어 보이던 그 사람, 한 해에 몇 번 일요일과 큰 명절에 드물게 다 같이 산책을 나갈 때면, 원래도 천천히 걷는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보다 조금 더 천천히, 낯은 외투로

몸을 감싸고 지팡이를 늘 조심스럽게 짚으며 애써 앞으로 나아가다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거의 언제나 멈춰 서서 일행을 자기 둘레로 불러
 모으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인가?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꼴꼴이 잘 서
 있었다. 금단추가 달린 뺨뺨한 파란 은행 사환 제복 차림이었고, 높고
 뺨뺨한 웃웃 깃 위로 두툼한 이중 턱이 불거져 있었고, 술 많은 눈썹
 밑으로 검은 눈의 눈길이 생기 있고 날카롭게 뻗어 나왔고, 평소
 형클어져 있던 흰머리는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게 가르마를 타서
 반들반들하게 빗어 붙였다. 아버지는 아마 어느 은행의 것인 듯한 금빛
 머리글자가 박힌 모자를 방을 가로질러 소파 쪽으로 활 모양으로 휘
 던지고는, 긴 제복 웃웃 자락을 뒤로 젖히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이를 악문 얼굴로 그레고르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자신도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어쨌든 그는 발을 유난히 높이 들었고,
 그레고르는 그 장화 밑창이 엄청나게 큰 데 놀랐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새로운 삶의 첫날부터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더없이 엄하게 대하는 것만이 마땅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달아났고, 아버지가 멈추면
 멈췄했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벌써 다시 앞으로 서둘러
 나아갔다. 그렇게 둘은 몇 번이나 방을 빙빙 돌았지만 결정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걸음이 느려서 이 모든 것이 쫓고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레고르도 당분간 바닥에 머물렀다.
 더구나 벽이나 천장으로 달아나면 아버지가 그것을 유난히 고약한
 짓으로 여길까 두려웠다. 하기야 그레고르는 이렇게 달리는 것조차 오래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한 걸음 떼는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동작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벌써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그의 폐는 아주 믿음직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달리는 데 온 힘을 모으려고 비틀비틀 나아가며 눈도 거의 뜨지 못했고,

멍해진 머리로 달리는 것 말고 다른 살길은 아예 생각도 못 했으며, 벽이 자기에게 열려 있다는 것조차 거의 잊고 있었다. 물론 여기 벽은 톱니와 뾰족한 끝이 잔뜩 달린, 공들여 깎은 가구들로 가로막혀 있었다. 그때 바로 곁으로 무언가 가볍게 던져져 날아와 떨어지더니 그의 앞으로 굴러갔다. 사과였다. 곧 두 번째 사과가 뒤따라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겁에 질려 멈춰 섰다. 더 달아나 봐야 소용없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포격을 퍼붓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찬장 위 과일 접시에서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는, 당장은 딱히 겨냥하지도 않고 사과를 하나씩 던졌다. 이 작고 빨간 사과들은 전기라도 오른 듯 바닥 위를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서로 부딪쳤다. 힘없이 던진 사과 하나는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지만 해를 입히지 않고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러나 곧바로 뒤따라 날아온 사과 하나는 그레고르의 등에 그야말로 박혀 들어갔다. 그레고르는 이 뜻밖의 믿을 수 없는 통증이 자리를 옮기면 사라지길라도 할 듯 몸을 끌고 더 가려 했지만, 그 자리에 붙박인 듯 꼼짝할 수 없다고 느꼈고, 모든 감각이 완전히 뒤편 채 몸을 길게 뻗었다. 마지막 눈길로 그는 아직 보았다. 그의 방문이 확 열리더니 비명을 지르는 누이동생 앞으로 어머니가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누이동생이 기절한 어머니가 숨을 편히 쉬도록 옷을 벗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가는 길에 풀어 둔 치마가 하나씩 차례로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치마에 걸려 비틀거리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그러나 이제 그레고르의 눈은 벌써 보이지 않았다) 두 손을 아버지의 뒤통수에 얹은 채 그레고르의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빌었다.

제3부

그레고르는 크게 다쳐 한 달 넘게 앓았다. 사과는 아무도 감히 빼낼 엄두를 내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기념물처럼 살 속에 박힌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상처 덕에 아버지마저 다시 떠올린 듯했다. 그레고르가 지금은 비록 처량하고 역겨운 모습일지라도 엄연히 한 식구이므로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되며, 혐오감을 꼭 삼키고 참는 것, 오직 참는 것만이 가족의 의무가 명하는 바라는 것을.

그리고 그레고르는 그 상처 때문에 아마 영영 몸놀림이 둔해졌고, 당분간은 자기 방을 가로지르는 데도 높은 상이군인처럼 길고 긴 몇 분이 걸렸지만(높은 데로 기어오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상태가 이렇게 나빠진 대신 그가 보기에 아주 넉넉한 보상을 얻었다. 저녁 무렵이면 늘 거실 문이 열렸고, 그는 한두 시간 전부터 그 문을 뚫어지게 지켜보곤 했다. 그러면 그는 자기 방 어둠 속에 누워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은 채, 불 밝힌 식탁에 둘러앉은 온 가족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말하자면 모두의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그레고르가 작은 호텔 방에서 지친 몸을 녹უნ한 이부자리에 던져야 할 때면 늘 얼마쯤 그리워하며 떠올리던, 예전의 그 활기찬 대화가 더는 아니었다. 이제는 대개 아주 조용했다. 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나면 곧 자기 의자에서 잠들었고,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서로 조용히 하라고 일렀고, 어머니는 불빛 쪽으로 몸을 바짝 숙인 채

옷가게에 넘길 고운 속옷을 지었고, 점원 자리를 얻은 누이동생은 나중에 혹시 더 나은 자리를 얻을까 하여 저녁마다 속기와 프랑스어를 배웠다. 이따금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 자기가 잠들었던 줄은 전혀 모른다는 듯 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늘도 또 한참이나 바느질이로군!" 그러고는 곧 다시 잠들었고,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지친 얼굴로 서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일종의 고집으로 집에서도 사환 제복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잠옷은 옷걸이에 쓸모없이 걸려 있었고, 아버지는 언제든 근무할 채비가 되어 있어 여기서도 상관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듯 옷을 다 차려입은 채 자기 자리에서 졸았다. 그 탓에 처음부터 새것도 아니던 제복은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아무리 손질해도 점점 지저분해졌고, 그레고르는 온통 얼룩투성이인 데다 늘 닦아 두는 금단추만 번쩍이는 그 옷, 늙은 사내가 몹시 불편하면서도 고요히 잠들어 있는 그 옷을 저녁 내내 바라보곤 했다.

시계가 열 시를 치면 어머니는 나직이 말을 건네 아버지를 깨우고는 침대로 가라고 달래려 했다. 여기서 자는 것은 제대로 된 잠이 아니었고, 여섯 시에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아버지에게는 제대로 된 잠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환이 된 뒤로 사로잡힌 고집 때문에 아버지는 꼬박꼬박 잠들면서도 늘 식탁에 더 앉아 있겠다고 우겼고, 게다가 의자를 침대와 바꾸게 하려면 몹시 애를 먹어야 했다.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아무리 작은 잔소리로 다그쳐도, 아버지는 15분이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은 채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소매를 잡아당기고 귀에 대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누이동생이 어머니를 도우려고 공부를 내려놓아도 아버지에게는 먹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의자에 더 깊이 파묻힐 뿐이었다. 두 여인이 겨드랑이를 붙잡고서야 아버지는 눈을 뜨고,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번갈아 보며 말하곤 했다.

"이게 사는 거냐. 이게 내 늘그막의 휴식이란 말이다." 그러고는 두 여인에게 기대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기라도 한 듯 힘겹게 일어나서, 두 여인의 부축을 받아 문까지 가서는 거기서 뒀다고 손을 내젓고 이제 혼자 걸어갔는데,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누이동생은 펜을 허둥지둥 내던지고 아버지 뒤를 쫓아가 계속 거들었다.

이렇게 일에 지치고 피곤에 절은 가족 가운데 누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레고르를 돌볼 겨를이 있었겠는가? 살림은 점점 더 줄었다. 하녀는 결국 내보냈다. 흰 머리칼이 머리 둘레로 나풀거리는, 키 크고 뼈대 억센 파출부가 아침저녁으로 와서 가장 힘든 일을 해 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어머니가 많은 바느질 일을 하는 틈틈이 해냈다. 심지어 예전에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모임이나 잔치 때 더없이 기뻐하며 몸에 걸던 집안의 장신구 몇 점까지 팔았는데, 그레고르는 저녁에 다 같이 받아 낸 값을 의논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가족이 늘 가장 크게 한탄한 것은 지금 형편에는 너무 큰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레고르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사를 막는 것이 자기에 대한 배려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러면 숨구멍 몇 개를 뚫은 알맞은 상자에 넣어 쉽게 옮길 수 있었을 테니까. 가족이 집을 옮기지 못하게 붙잡은 것은 오히려 완전한 절망, 그리고 친척과 아는 사람을 통틀어 아무도 겪지 않은 불행을 자기들만 당했다는 생각이었다. 세상이 가난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일을 그들은 끝까지 해냈다. 아버지는 말단은행원들에게 아침거리를 날라다 주었고, 어머니는 남의 속옷을 짓느라 몸을 바쳤고, 누이동생은 손님이 시키는 대로 계산대 뒤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러나 가족의 힘은 벌써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아버지를 침대에 눕히고 돌아와 일거리를 내버려 둔 채 바깥다다 갔다. 뺨을 맞대고 앉아 있을 때면, 그리고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며 "그레테, 저기 문 좀 닫아라" 하고 말하고, 그레고르가 다시 어둠 속에 놓이고, 옆방에서 두 여인이 눈물을 섞거나 아예 눈물도 없이 식탁을 멍하니 바라볼 때면, 그레고르의 등에 난 상처가 새로 생긴 듯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밤이고 낮이고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보냈다. 이따금 그는 다음에 문이 열리면 집안일을 예전과 똑같이 다시 맡아 처리하리라 생각했다. 오랜만에 그의 머릿속에 다시 사장과 지배인, 점원들과 견습 사환들, 그 몹시 굵은 잡일꾼,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 두셋, 시골 어느 호텔의 객실 하녀, 그 사랑스럽고 덧없는 추억, 진지하게 그러나 너무 느릿느릿 구애했던 모자 가게 계산원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낯선 사람들이나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과 뒤섞여 나타났지만, 그와 그의 가족을 돕기는커녕 하나같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는 그들이 사라지면 기뻐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가족을 걱정할 기분이 전혀 아니게 되었고, 형편없는 보살핌에 대한 분노만 가득 찼다. 무엇이 먹고 싶은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그는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기 몫인 것을 가지러 식료품실에 어떻게 들어갈지 궁리했다. 누이동생은 이제 무엇으로 그레고르를 특별히 기쁘게 해 줄 수 있을지는 더 생각하지 않고, 아침과 점심에 가게로 달려가기 전에 아무 음식이나 발로 그레고르의 방에 서둘러 밀어 넣었다가, 저녁이면 그 음식을 조금 맛만 보았든 가장 흔한 경우대로 전혀 손대지 않았든 상관없이 빗자루를 한 번 휘둘러 쓸어 냈다. 이제 늘 저녁에 하는 방 청소도 이보다 더 빨리 해치울 수는 없었다. 벽을 따라 때 자국이 줄줄이 나 있었고, 여기저기 먼지와 쓰레기 뭉치가 굴러다녔다. 처음에 그레고르는 누이동생이 오면 유난히 그런 꼴이 드러나는 구석에 가 있곤 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 누이동생을 말하자면 나무랄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가 몇 주 동안 거기 있었더라도 누이동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누이동생도 그만큼 그

더러움을 보았지만, 그냥 내버려 두기로 마음을 굳혔을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누이동생은 온 가족을 사로잡은, 누이동생에게서는 전혀 새로운 예민함으로 그레고르의 방 청소만은 자기 몫으로 남겨 두려고 지켰다. 한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한 적이 있었는데, 양동이로 물을 몇 통이나 쓰고서야 해낼 수 있었다. 그 많은 물기에 그레고르도 물론 비위가 상해서 소파 위에 눕적하게, 부루퉁한 채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벌을 면하지 못했다. 저녁에 누이동생은 그레고르 방이 달라진 것을 알아채자마자 몹시 모욕을 느끼고 거실로 달려가서, 어머니가 애원하듯 두 손을 쳐들었는데도 발작하듯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는(아버지는 물론 자기 의자에서 화들짝 깨어났다) 처음에는 놀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다가 이윽고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여, 아버지는 오른쪽으로는 어머니에게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누이동생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나무라고 왼쪽으로는 누이동생에게 다시는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고함을 쳤고, 그사이 어머니는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가려 했고, 누이동생은 흐느낌에 온몸을 떨며 작은 주먹으로 식탁을 두드려 댔고, 그레고르는 아무도 문을 달아 이런 꼴과 소란을 자기에게서 덜어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크게 씩씩 소리를 냈다.

그러나 누이동생이 일에 지쳐 예전처럼 그레고르를 돌보는 것에 싫증이 났다 해도, 어머니가 굳이 대신 나설 필요는 전혀 없었고, 그레고르가 내팽개쳐질 까닭도 없었다. 이제 파출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억센 뼈대 덕분에 긴 일생 동안 가장 험한 일도 견뎌 냈을 이 늙은 과부는 그레고르를 딱히 꺼리지 않았다. 한번은 무슨 호기심 때문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었다가, 쫓는 사람도 없는데 깜짝 놀라 이리저리 달리기 시작하는 그레고르를 보고는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놀라워하며 서 있었다. 그 뒤로 파출부는 아침저녁으로 잠깐씩 문을 조금 열고 그레고르를 들여다보는 것을 빼먹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마 자기 뒀에는 다정하다고 여긴 말로 그레고르를 부르기도 했다. "이리 와 봐, 늙은 쇠똥구리야!" 아니면 "저 늙은 쇠똥구리 좀 봐!" 그렇게 말을 걸어도 그레고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기라도 한 듯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차라리 이 파출부가 제멋대로 쓸데없이 그를 귀찮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의 방을 날마다 청소하라고 일렀더라면! 한번은 이른 아침에(어쩌면 벌써 다가오는 봄의 징조인지 세찬 비가 유리창을 때렸다) 파출부가 또 그런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그레고르는 몹시 화가 나서, 비록 느리고 힘없는 몸짓이었지만 덤벼들 듯 파출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파출부는 겁을 먹기는커녕 문 가까이 있던 의자 하나를 높이 번쩍 들어 올렸을 뿐이었고, 입을 크게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손에 든 의자를 그레고르의 등에 내리친 다음에야 입을 다물 작정인 것이 분명했다. "그래, 더는 못 덤비겠지?" 그레고르가 다시 돌아서자 파출부는 그렇게 묻고는 의자를 조용히 구석에 도로 갖다 놓았다.

그레고르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차려 놓은 음식 곁을 우연히 지나칠 때만 장난삼아 한 입 물고 몇 시간이고 입에 머금고 있다가 대개는 도로 뱉어 냈다. 처음에 그는 방이 이 꼴이 된 것이 슬퍼서 먹지 못하는 줄로 생각했지만, 방이 달라진 것과는 오히려 아주 금세 화해했다. 다른 데 둘 수 없는 물건은 이 방에 들여놓는 것이 버릇이 되었는데, 집의 방 하나를 세 하숙인에게 세놓은 뒤로 그런 물건이 많아졌다. 이 근엄한 신사들은, 그레고르가 한번은 문틈으로 확인한 바로는 셋 다 턱수염을 길렀는데, 자기네 방뿐 아니라, 어쨌든 여기 세 들어 살게 된 이상 집안 살림 전체, 그러니까 특히 부엌의 질서까지 지나치리만큼 따졌다. 쓸모없는 잡동사니, 더구나 더러운

잡동사니는 참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쓸 가구를 대부분 직접 가져왔다. 그래서 팔 수도 없지만 버리기도 아까운 물건이 많이 남아둘게 되었다. 이것들이 모두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 왔다. 부엌의 채 상자와 쓰레기 상자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쓸모없는 것은 무엇이든, 늘 몹시 바쁜 파출부가 그냥 그레고르의 방에 휙 던져 넣었다. 그레고르는 다행히 대개 그 물건과 그것을 진 손만 보았다. 파출부는 아마 틈이 나는 대로 물건들을 다시 가져가거나 한꺼번에 다 내다 버릴 생각이었겠지만, 실제로 물건들은 처음 던져진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레고르가 잡동사니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그것들을 움직여 놓을 때만 빼고 그랬다. 처음에는 달리 기어다닐 빈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나중에는 점점 재미가 붙었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면 죽을 만큼 지치고 슬퍼서 다시 몇 시간이고 꿈쩍하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하숙인들은 이따금 저녁 식사도 집에서, 함께 쓰는 거실에서 했으므로 어떤 저녁에는 거실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는 것을 아주 쉽게 단념했다. 문이 열려 있던 많은 저녁에도 그것을 누리지 않고, 가족이 모르게 방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누워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한번은 파출부가 거실 문을 조금 열어 둔 채 갔고, 저녁에 하숙인들이 들어와 불을 켜올 때도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레고르가 앉던 식탁 위자리에 앉아 냅킨을 펴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들었다. 곧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문간에 나타났고, 바로 뒤에서 누이동생이 감자를 수북이 쌓은 접시를 들고 나타났다. 음식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하숙인들은 먹기 전에 음식을 검사하려는 듯 앞에 놓인 접시 위로 몸을 숙였고, 실제로 가운데 앉아서 나머지 둘에게 권위로 통하는 듯한 사람이 아직 접시에 놓인 고기 한 점을 잘라 보았다. 고기가 충분히 연한지, 혹시 부엌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만족했고, 숨죽이고 지켜보던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한숨을 돌리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가족은 부엌에서 먹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기 전에 이 방에 들어와 모자를 손에 들고 한 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식탁을 한 바퀴 돌았다. 하숙인들은 모두 일어나 턱수염 속으로 무어라 웅얼거렸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남게 되자 거의 아무 말 없이 먹었다. 그레고르에게는 이상하게도, 먹을 때 나는 온갖 소리 가운데서 그들의 씹는 이 소리가 자꾸만 따로 들려왔다. 마치 먹으려면 이가 있어야 하고 아무리 멋진 이 없는 턱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레고르에게 보여 주려는 것 같았다. "나도 식욕은 있어." 그레고르는 근심스럽게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저런 것에는 없어. 저 하숙인들은 저렇게 잘 먹는데, 나는 굶어 죽어 가다니!"

바로 그날 저녁, 부엌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울렸다. 그레고르는 그동안 내내 바이올린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었다. 하숙인들은 벌써 저녁 식사를 마쳤고, 가운데 사람이 신문을 꺼내 나머지 둘에게 한 장씩 나눠 주었고, 이제 셋은 몸을 뒤로 기대고 신문을 읽으며 담배를 피웠다.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자 그들은 귀를 기울이더니 일어나 발끝으로 현관방 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서로 붙어 선 채 멈춰 섰다. 부엌에서 그들의 기척을 들은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외쳤기 때문이다. "신사분들께서 연주가 불편하신지요? 곧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운데 신사가 말했다. "아가씨께서 이리 들어오셔서 연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훨씬 편하고 아늑할 텐데요." "아, 그럼요." 아버지는 자기가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기라도 한 듯 외쳤다. 신사들은 방으로 돌아가 기다렸다. 곧 아버지가 보면대를, 어머니가 악보를, 누이동생이 바이올린을 들고 왔다. 누이동생은 차분하게 연주

준비를 했다. 예전에 방을 세놓아 본 적이 없어서 하숙인들에게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는 부모는 자기 의자에 앉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단추를 다 채운 제복 옷옷의 두 단추 사이에 오른손을 찔러 넣은 채 문에 기대어 섰고, 어머니는 한 신사가 권한 의자를 받았는데, 그 신사가 마침 놓아둔 자리에 의자를 그대로 둔 탓에 한쪽 구석에 떨어져 앉게 되었다.

누이동생이 연주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누이동생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연주에 이끌린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벌써 머리가 거실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요즘 들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이토록 배려하지 않는 것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 배려가 그의 자랑이었다. 게다가 바로 지금이야말로 숨어야 할 까닭이 더 많았다. 방 안 곳곳에 쌓여 있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날리는 먼지 때문에 그도 온통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고, 실오라기와 머리카락과 음식 찌꺼기를 등과 옆구리에 달고 끌고 다녔다.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커서, 예전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듯이 누워 양탄자에 등을 문지르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꼴을 하고도 그는 티 하나 없는 거실 바닥으로 조금 나아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하기야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다. 가족은 바이올린 연주에 온통 빠져 있었다. 반면 하숙인들은 처음에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르고 누이동생의 보면대 바로 뒤에, 다들 악보를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너무 가까이 자리를 잡아서 틀림없이 누이동생을 방해했을 텐데, 곧 고개를 숙이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며 창가로 물러났고,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거기 그대로 있었다. 아름답거나 재미있는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리라던 기대가 어긋나서 이 공연 전체에 넋더리가 났는데 그저 예의상 쉬는 것을 방해받고도 참아 주고 있을 뿐이라는 기색이

이제 정말로 너무나 뚜렷했다. 특히 다들 코와 입으로 시가 연기를 위로 뿜어 올리는 모양새를 보면 몹시 신경이 곤두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누이동생은 참 아름답게 연주했다. 얼굴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눈길은 살피듯이 슬프게 악보의 줄을 따라갔다.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기어 나가, 어쩌면 누이동생과 눈길이 마주칠까 하여 머리를 바닥에 바짝 붙였다. 음악이 이토록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가 짐승이란 말인가? 그는 그토록 바라던 미지의 양식에 이르는 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누이동생에게까지 다가가 치맛자락을 잡아당겨, 바이올린을 들고 자기 방으로 와 달라는 뜻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가 보답하고 싶은 만큼 이 연주에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누이동생을 다시는 자기 방에서 내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적어도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의 끔찍한 모습이 처음으로 쓸모를 얻게 될 터였다. 그는 방의 문이란 문을 한꺼번에 지키고 서서 덤벼드는 자들에게 씩씩거리며 맞설 작정이었다. 그러나 누이동생은 억지로가 아니라 제 뜻으로 그의 곁에 머물러야 했다. 누이동생은 소파에 그와 나란히 앉아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어야 했고, 그러면 그는 누이동생을 음악원에 보낼 굳은 계획이 있었다고, 그 불행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지난 성탄절에(성탄절은 아마 벌써 지나갔겠지?) 누가 무어라 반대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에게 그렇게 말했으리라고 털어놓을 작정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나면 누이동생은 감동해서 눈물을 터뜨릴 테고, 그레고르는 누이동생의 어깨까지 몸을 일으켜, 가게에 나가기 시작한 뒤로 리본도 깃도 두르지 않고 드러내 놓은 그 목에 입을 맞출 터였다.

"잠자 씨!" 가운데 신사가 아버지를 부르더니, 더는 아무 말 없이 집게손가락으로 천천히 앞으로 기어 나오는 그레고르를 가리켰다. 바이올린 소리가 똑 그쳤다. 가운데 하숙인은 먼저 친구들에게 고개를

저으며 한 번 웃어 보이고는 다시 그레고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아내기보다 우선 하숙인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더 급하다고 여기는 듯했다. 하숙인들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고, 그레고르가 바이올린 연주보다 그들을 더 즐겁게 해 주는 듯했는데도 그랬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달려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그들의 방으로 밀어 넣으려 하면서 동시에 자기 몸으로 그레고르가 보이지 않게 가리려 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로 조금 화가 났다. 아버지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레고르 같은 방 이웃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인지는 이제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저희대로 팔을 쳐들고 불안하게 턱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천천히 자기들 방 쪽으로 물러났다. 그사이 누이동생은 갑자기 연주가 끊긴 뒤 빠져 있던 댕 나간 상태에서 벗어나, 한동안 축 늘어진 두 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든 채 아직 연주하고 있는 듯 악보를 들여다보다가 별안간 정신을 차리고는, 숨이 차서 폐를 세차게 들썩이며 아직 의자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무릎에 악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떠밀린 하숙인들이 벌써 더 빨리 다가가고 있는 옆방으로 달려갔다. 누이동생의 익숙한 손길 아래 침대의 이불과 베개가 높이 날아올랐다가 가지런히 정돈되는 것이 보였다. 신사들이 방에 이르기 전엔 누이동생은 잠자리를 다 펴 놓고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다시 고집에 사로잡혀, 그래도 하숙인들에게는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존중을 다 잊은 듯했다. 아버지는 떠밀고 또 떠밀었고, 마침내 방문 앞에서 가운데 신사가 쿵 하고 발을 구르는 바람에 멈춰 섰다.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가운데 신사가 한 손을 들고 어머니와 누이동생까지 눈으로 찾으며 말했다. "이 집과 이 가족에 만연한 역겨운 사정을 고려하여." 여기서 그는 단호하게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제 방을 즉시 해약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낸 날들에 대해서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잡자 씨를 상대로, 믿어 주십시오, 아주 쉽게 근거를 달 수 있는 청구를 제기할지 어떨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무언가 기다리는 듯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실제로 두 친구가 곧바로 끼어들었다. "저희도 즉시 해약하겠습니다." 그러자 가운데 신사는 문고리를 잡고 쿵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비틀비틀 자기 의자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여느 때처럼 저녁 선잠을 자려고 몸을 뻗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누지 못하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것을 보면 결코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그동안 내내 하숙인들에게 들킨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계획이 어긋난 데 대한 실망 때문에, 어쩌면 오래 굶어서 기운이 빠진 탓도 있어서,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바로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자기 위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리라고 얼마쯤 확신하며 두려워했고, 기다렸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무릎에서 떨어지며 쩡 울리는 소리를 낸 바이올린조차 그를 놀라게 하지 못했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동생이 말머리를 꺼내듯 손으로 식탁을 탁 치며 말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두 분은 모르실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저 괴물 앞에서 오빠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말할게요. 우리는 저것을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저것을 돌보고 참으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털끝만큼도 탓하지 못할 거예요."

"저 애 말이 백번 옳다." 아버지가 혼잣말을 했다. 아직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어머니는 넋 나간 눈빛으로 입을 가린 손에 대고 둔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누이동생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마를 짚어 주었다. 아버지는 누이동생의 말을 듣고 생각이 더 분명해진 듯 똑바로 고쳐 앉아,

하숙인들이 저녁을 먹고 남긴 채 아직 식탁에 놓여 있는 접시들 사이에서 사환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이따금 조용히 있는 그레고르 쪽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저것을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해요." 누이동생이 이번에는 오로지 아버지에게만 말했다. 어머니는 기침하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게 두 분을 결국 죽이고 말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우리처럼 다들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는 처지에, 집에서까지 이렇게 끝없이 시달리는 건 견딜 수 없어요. 저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러고는 누이동생이 너무 심하게 울음을 터뜨려서 눈물이 어머니 얼굴로 흘러내렸고, 누이동생은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어머니 얼굴의 눈물을 닦았다.

"애야." 아버지가 딱하다는 듯이, 그리고 눈에 띄게 이해심을 보이며 말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니?"

누이동생은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까의 자신만만함과 달리 울다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는 표시였다.

"저 애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아버지가 반쯤 문듯이 말했다. 누이동생은 울면서 그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표시로 손을 세차게 내저었다.

"저 애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아버지는 되풀이하고는, 눈을 감아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누이동생의 확신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찌면 저 애와 무슨 합의를 볼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이래서야..."

"저건 없어져야 해요." 누이동생이 외쳤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저게 오빠라는 생각을 없애려고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 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그런데 저게 어떻게 오빠일 수 있어요? 저게 오빠라면, 사람이 저런 짐승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벌써 알아차리고 제 발로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빠는 없겠지만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오빠를 기리며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 짐승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하숙인들을 몰아내고, 분명히 집을 통째로 차지하고 우리를 길바닥에서 자게 만들 작정이예요. 저것 보세요, 아버지." 누이동생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오빠가 또 시작해요!" 그리고 그레고르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누이동생은 어머니마저 내버려 두고, 그레고르 가까이 남아 있느니 차라리 어머니를 희생시키겠다는 듯 의자를 그야말로 밀쳐 내고 일어나 아버지 뒤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그저 누이동생이 그러는 바람에 덩달아 흥분해서 일어서더니, 누이동생을 지키려는 듯 두 팔을 누이동생 앞에서 반쯤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누구에게도, 더구나 누이동생에게 겁을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물론 그 모습은 유난히 눈에 띄었는데, 몸이 성치 않아서 힘든 방향 전환을 머리로 거들어야 했고, 그러느라 머리를 여러 번 쳐들었다가 바닥에 찰싹기 때문이다. 그는 멈추고 둘러보았다. 그의 좋은 뜻이 알려진 듯했다. 그저 한순간의 놀람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다들 말없이 슬픈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두 다리를 뻗어서로 붙인 채 의자에 누워 있었고, 지쳐서 눈이 거의 감겨 있었다. 아버지와 누이동생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누이동생은 아버지의 목에 손을 두르고 있었다.

"이제는 몸을 돌려도 되겠지." 그레고르는 생각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힘이 들어 씹씹거리는 소리를 참을 수 없었고, 이따금 쉬어야 했다. 그 밖에는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에게 맡겨져 있었다. 방향을 다 돌리자 그는 곧장 앞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기 방까지 거리가 그토록 먼 데 놀랐고, 조금 전 이렇게 쇠약한 몸으로 같은 길을 거의 알아채지도 못한 채 어떻게 지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줄곧 빨리 기어가는 데만 마음을 쓰느라, 가족이 한마디 말도, 한 번의 외침도 내지 않아 그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문간에 이르러서야 그는 고개를 돌렸다.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껴서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뒤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누이동생만 일어서 있다는 것은 보았다. 그의 마지막 눈길이 이제 완전히 잠든 어머니를 스쳤다.

그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서둘러 꼭 닫히고 빗장이 질리고 잠겼다. 뒤에서 갑자기 나는 소리에 그레고르는 너무 놀라 가는 다리들이 꺾였다. 그렇게 서두른 사람은 누이동생이었다. 누이동생은 이미 곳곳이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렵하게 앞으로 뛰어나왔는데, 그레고르는 누이동생이 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누이동생은 자물쇠의 열쇠를 돌리며 부모에게 외쳤다. "됐다!"

"그럼 이제는?"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하며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그는 곧 자기가 이제 아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그것이 놀랍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다리로 정말 움직여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여겨졌다. 그 밖에는 비교적 편안했다. 온몸이 아프기는 했지만, 통증이 차츰 약해지고 약해져서 마침내 아주 사라질 것만 같았다. 등에 박힌 썩은 사과와, 보드라운 먼지로 온통 덮인 그 돌레의 굵은 자리도 벌써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감동과 사랑을 품고 가족을 생각했다. 자기가 사라져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어쩌면 누이동생의 생각보다도 더 단호했다. 이렇게 텅 비고 평화로운 생각에 잠긴 채 그는 탐시계가 새벽 세 시를 칠 때까지 있었다. 창밖이 온통 밝아 오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그도 껴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가 그의 뜻과 상관없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힘없이 흘러나왔다.

이른 아침 파출부가 왔다. 파출부는 힘이 넘치는 데다 늘 서두르느라,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토록 여러 번 부탁했는데도 문이란 문을 모조리 광광 닫아 대서, 파출부가 오고 나면 온 집에서 아무도 더는 편히 잘 수가 없었다. 파출부는 늘 하던 대로 그레고르를 잠깐 들여다보았을 때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파출부는 그레고르가 일부러 저렇게 꼼짝 않고 누워 토라진 척하는 줄 알았다. 그가 무엇이든 알아들을 만큼 영리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마침 긴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었으므로 파출부는 문간에서 그것으로 그레고르를 간질여 보았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짜증이 나서 그레고르를 조금 쿡 찘들었고, 아무 저항 없이 그를 제자리에서 밀어내고 나서야 주의를 기울였다. 이윽고 진짜 사정을 알아차리자 파출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휘파람을 휘 불었지만, 오래 머뭇거리지 않고 침실 문을 확 열어젖히고 어둠 속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좀 와 보세요, 이게 뉘졌어요. 저기 아주 완전히 뉘져 있다니까요!"

잠자 부부는 부부 침대에 똑바로 일어나 앉아, 파출부의 전갈을 알아듣기에 앞서 우선 파출부 때문에 놀란 가슴부터 진정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잠자 씨와 잠자 부인은 저마다 자기 쪽에서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왔다. 잠자 씨는 이불을 어깨에 걸쳤고, 잠자 부인은 잠옷 바람으로 나왔다. 그렇게 둘은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사이 하숙인들이 들어온 뒤로 그레테가 자던 거실 문도 열렸다. 그레테는 아예 잠을 자지 않은 듯 옷을 다 차려입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도 그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죽었어요?" 잠자 부인이 말하며 묻는 눈길로 파출부를 쳐다보았다. 사실 자기가 직접 다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하지 않고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랬다. "그렇고말고요." 파출부가 말하고는 증거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빗자루로 한참 옆으로 더 밀어 보였다. 잠자 부인은 빗자루를 붙잡으려는 듯한 몸짓을 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자."

잠자 씨가 말했다.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구려." 그는 성호를 그었고, 세 여자도 그를 따라 했다. 시체에서 눈을 떼지 않던 그레테가 말했다. "얼마나 말랐는지 좀 보세요. 벌써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음식이 들어온 그대로 도로 나갔어요." 실제로 그레고르의 몸은 완전히 납작하고 바싹 말라 있었다. 이제 가는 다리들이 몸을 받쳐 들지도 않고 그 밖에 눈길을 빼앗는 것도 없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레테, 이리 와서 잠깐 우리 방에 들어와 있으렴." 잠자 부인이 서글픈 미소를 띠며 말했고, 그레테는 시체를 돌아보며 부모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파출부는 문을 닫고 창을 활짝 열었다. 이른 아침인데도 상쾌한 공기에는 벌써 얼마쯤 미지근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벌써 3월 말이었다.

세 하숙인이 자기들 방에서 나와 놀란 얼굴로 아침 식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다들 그들을 잇고 있었다. "아침은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신사가 뚱하게 파출부에게 물었다. 그러나 파출부는 손가락을 입에 대더니, 그레고르의 방으로 와 보라고 신사들에게 말없이 서둘러 손짓했다. 그들은 정말로 와서, 조금 닳은 옷옷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이제 아주 환해진 방에서 그레고르의 시체를 둘러싸고 섰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더니 잠자 씨가 제복을 입고 한쪽 팔에는 아내를, 다른 쪽 팔에는 딸을 끼고 나타났다. 다들 조금 운 얼굴이었다. 그레테는 이따금 아버지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잠자 씨가 두 여자를 놓지 않은 채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운데 신사가 조금 당황해서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머지 둘은 뒷짐을 진 채 설 새 없이 두 손을 비벼 댔다. 큰 싸움이, 그러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벌어지기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 같았다. "말한 그대로요."

잠자 씨는 대답하고, 두 동행과 한 줄로 나란히 하숙인에게 다가갔다. 하숙인은 처음에는 가만히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에서 사물들이 새로운 질서로 짜 맞춰지는 듯했다. "그럼 가겠습니다." 이윽고 그가 말하며 잠자 씨를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몰려온 겸손 때문에 이 결정에도 새로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다. 잠자 씨는 눈을 크게 뜨고 그에게 몇 번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그러자 신사는 정말로 곧장 성큼성큼 현관방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두 친구는 벌써 한동안 손을 아주 가만히 둔 채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제 그야말로 깡충깡충 그를 뒤따랐다. 잠자 씨가 자기들보다 먼저 현관방에 들어가 우두머리와 자기들 사이를 끊어 놓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현관방에서 셋은 모두 옷걸이에서 모자를 집고, 지팡이꽃이에서 지팡이를 뽑고,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집을 나갔다. 잠자 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근거 없던 의심에서 두 여자와 함께 층계참으로 나갔다. 그들은 난간에 기대어, 세 신사가 느리지만 쉬지 않고 긴 계단을 내려가며 층마다 계단통이 꺾이는 일정한 자리에서 사라졌다가 잠시 뒤 다시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잠자 가족의 관심도 차츰 사라졌고, 푸줏간 일꾼 하나가 머리에 짐판을 이고 의젓한 자세로 그들과 마주쳐 올라오더니 이윽고 그들보다 훨씬 높이 올라오자, 잠자 씨는 곧 두 여자와 함께 난간을 떠났고, 모두 홀가분해진 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쉬고 산책하는 데 쓰기로 했다. 그들은 이렇게 일을 쉴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쉬는 것이 꼭 필요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들은 식탁에 앉아 결근을 알리는 편지 세 통을 썼다. 잠자 씨는 은행 상관에게, 잠자 부인은 일감 주는 가게에, 그레테는 가게 주인에게 썼다. 쓰고 있는 동안 파출부가 들어와서 아침 일이 끝났으니 가겠다고 했다. 쓰던 세 사람은 처음에는 눈도 들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파출부가 여전히 갈 생각을 하지 않자 그제야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뭐요?" 잠자 씨가 물었다. 파출부는 가족에게 큰 경사를 알려 줄 게 있는데 꼬치꼬치 물어봐야만 알려 주겠다는 듯 웃으며 문간에 서 있었다. 모자에 거의 곳곳이 꽃힌 작은 타조 깃털이 사방으로 살랑살랑 흔들렸다. 잠자 씨는 파출부가 일하러 온 뒤로 줄곧 그 깃털이 거슬렸다. "그래,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잠자 부인이 물었다. 파출부가 그래도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이 잠자 부인이었다. "네." 파출부는 대답하고는 상냥하게 웃느라 곧바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니까 옆방 그것을 어떻게 치울지는 걱정하실 것 없어요. 다 처리됐어요."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계속 쓰러는 듯 편지 위로 몸을 숙였다. 잠자 씨는 파출부가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늘어놓기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손을 내밀어 단호하게 막았다.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파출부는 자기가 몹시 바쁘다는 것을 떠올리고, 분명히 기분이 상해서 "그럼 다들 안녕히!" 하고 외치더니, 책 돌아서서 문을 무시무시하게 쿵 닫고 집을 나갔다.

"저녁에 내보내야겠군." 잠자 씨가 말했지만, 아내에게서도 딸에게서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파출부가 겨우 얻은 두 사람의 평온을 다시 흐트러뜨린 듯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서로 끌어안은 채 거기 서 있었다. 잠자 씨는 자기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돌려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외쳤다. "자, 이리들 와라. 이제 지나간 일은 그만 좀 놓아 버려. 그리고 나도 좀 배려해 주고." 두 여자는 곧 그의 말을 따라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어루만지고는 편지를 서둘러 끝냈다.

그리고 나서 셋은 함께 집을 나섰다. 벌써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들은 전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 교외로 나갔다. 그들만 타고 있는 전차 칸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비쳐 들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히 등을 기대고 앉아 앞날의 전망을 이야기했고, 찬찬히 따져 보니 앞날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 아직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었지만 셋의 일자리가 모두 아주 괜찮았고 특히 앞으로 무척 유망했기 때문이다. 지금 형편을 가장 크게 낮게 하는 일은 물론 이사로서 쉽게 이를 수 있을 터였다. 그들은 이제 그레고르가 고른 지금 집보다 작고 값싸지만 자리가 더 좋고 여러모로 더 실용적인 집을 얻으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잠자 씨와 잠자 부인은 점점 더 생기를 띠는 딸을 보며, 요즘 온갖 돌봄으로 뺨이 창백해졌는데도 딸이 어느새 예쁘고 풍만한 처녀로 활짝 피어났다는 것을 거의 동시에 깨달았다. 두 사람은 차츰 말이 없어지면서 거의 무심결에 눈길로 뜻을 주고받으며, 이제 딸에게 착실한 신랑감을 찾아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러 딸이 맨 먼저 일어나 젊은 몸을 쪽 찢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뜻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여겨졌다.

판권면

변신

원제 · Die Verwandlung

지은이 ·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1883~1924)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1915년, 『디 바이센 블레터(Die weißen Blätter)』 10월호. 같은 해 말 쿠르트 볼프 출판사 「최후의 심판일」 총서 22/23권.

저본 · 쿠르트 볼프판(1917년 판권 표기본)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독일어 전자 텍스트. 독일어 원전에서 옮겼다.

분량 · 원문 19,240단어 · 세 부분 · 97문단(원문과 같음) · 옮긴이 주 없음

저작권 · 지은이가 1924년에 사망해 원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0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19